

Introducing 자카, Songchico, 감상주의, denim
Full Review moogsick, ryuzimoto, 감상주의, 자카, SongChico
Classic Review 온암, BlackMatter, KimKardashian
Featured BlackMatter, KimKardashian, denim, 공ZA, 자카, moogsick
Editors' Pick 감상주의, BlackMatter, SRUKSAN, 자카
Design nhana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Introducing
02 **JHJ**
Review 10

28 **Classic**
Review 39

Featured

Editors'
Pick
53

Introducing

*Lahai (Deluxe) / CASTS OF A DREAMER /
Fête de la Vanille / JADED / Cafe Tom Tom /
Piece By Piece - Music from the Motion Picture /
GLORIOUS / May It Never Falter / TAKE CARE /
Goodbye Horses*



Lahai (Deluxe)

Sam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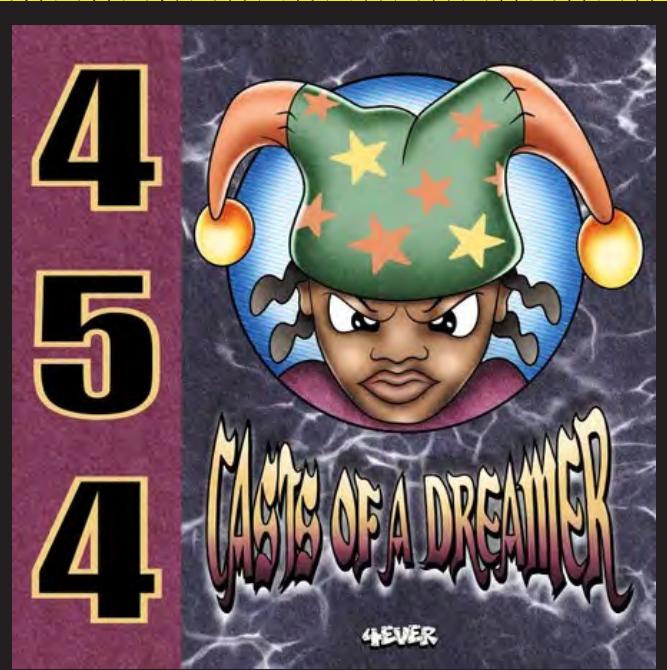
DISC 1 1. Stereo Colour Cloud (Shaman's Dream) / 2. Spirit 2.0 / 3. Dancing Circles / 4. Suspended / 5. Satellite Business / 6. Jonathan L. Seagull / 7. Inclination Compass (Tenderness) / 8. Only / 9. Time Piece / 10. Can't Go Back / 11. Evidence / 12. Wave Therapy / 13. What If You Hypnotise Me? (feat. Léa Sen) / 14. Rose Tint

DISC 2 1. Satellite Business 2.0 (feat. Little Simz) / 2. Dancing Circles 2.0 / 3. Re-Entry / 4. Sensory Nectar

album release 24.10.01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샘파(Sampha)의 2번째 정규 앨범 <Lahai>도 어느새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에 샘파는 앨범에 4곡을 추가한 디렉스 앨범을 발표하여 이를 축하하기로 하는데, 앨범에 추가된 이 4곡들은 대체 왜 본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경이롭다. 1분 길이의 "Satellite Business"를 Little Simz와 신선하게 재해석한 "Satellite Business 2.0", 영혼의 깊은 곳까지 폭 찔러버리는 듯한 "Re-Entry", 마법과도 같은 드럼과 복고적인 매력이 추가된 "Dancing Circles 2.0", 아찔하게 뇌세포를 쥐어뜯어가는 "Sensory Nectar"까지. <Lahai (Deluxe)>에서 보여준 샘파의 송라이팅과 밴드 세션의 합주는 그야말로 마술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샘파는 현 R&B 씬의 최정상을 달리고 있으며, 더 많은 작업물들이 나올 수록 그의 입지는 더더욱 굳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다음 앨범까지는 몇 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by 자카



CASTS OF A DREAMER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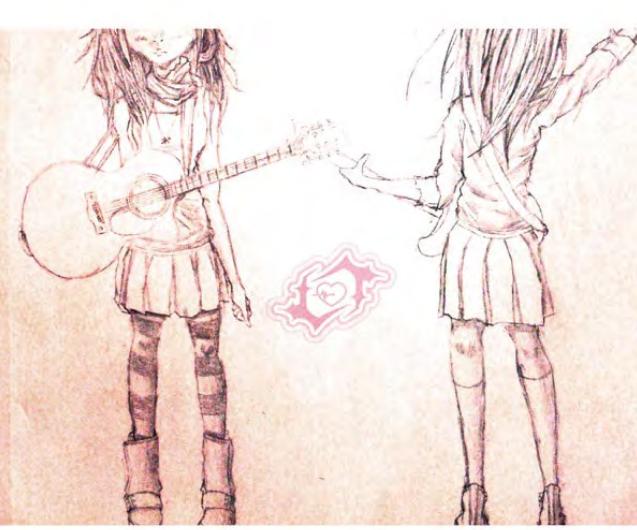
DISC 1 1. BANK OF AMERIKKKA / 2. 3:16 / 3. BOUT IT / 4. TEMS FLIP / 5. CASTS OF A DREAMER / 6. BRAINSTORM / 7. PAIN / 8. CIRQUE DE SOLEIL / 9. BETWEEN US / 10. EXTRAORDINAIRE (Feat.PIG THE GEMINI) / 11. SPIKE'S HOTLINE / 12. GLOBETROTTER / 13. OUTSIDE THE GAME / 14. COMMON DENOMINATOR (Feat.TUTU) / 15. NIGHTMARE INTERLUDE / 16. M.F.G (Feat.WOODY1K) / 17. MOVING TO FAST / 18. AMIGA

DISC 2 1. HOW COULD YOU BLAME ME / 2. DUCK DUCK GOOSE / 3. ALL LOVE / 4. MOTO CITY BAG / 5. FRUIT ROLL UP / 6. FEEL LOVE (Feat.PIG THE GEMINI) / 7. WYWD / 8. CLOSE 2 ME / 9. PAO DOCE (Feat. TUTU) / 10. BITTERSWEET / 11. OUTCAST / 12. LOST 4EVER / 13. DR5

album release 24.10.03

사운드클라우드의 전성기, XXXTENTACION, Lil Pump, Playboi Carti 등 씬을 수놓았던 별들의 프로듀서로 맹활약했던 454. 그는 '너무 잘나서', '예전 같지 않아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사운드클라우드를 떠나버린 래퍼들을 대신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부분의 앨범을 스트리밍 사이트에 발매하는 대신, 실물 형태의 앨범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후엔 사운드클라우드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행보와 Quasimoto의 영향으로 날 때부터 갖고 있던 목소리를 거부한 톤을 본다면, 454의 커리어는 '거부'로 요약할 수 있다. 본작은 또 하나의 '거부'이다. 31곡에 달하는 트랙을 기승전결과는 상관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 쌓아 놓으며 기존의 형식을 탈피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 없다. 한 곡, 한 곡 그의 독창성이 녹아 있으며 보컬 피치과 페어링을 이룬 빠른 속도의 프로덕션은 그 자체로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엔 충분하니. 이제는 '거부'를 넘어 '초월'의 경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454에게 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싶다.

by Songchico



Fête de la Vanille

Lucy Bedroque

1. I Am, She Is, We Are / 2. How to Pretend / 3. Mimosa / 4. Hot Boy
/ 5. Knot Me / 6. Pretty Peach

album release 24.10.04

루시 베드로크(Lucy Bedroque)의 <Fête de la Vanille>은 마치 무심코 열어젖힌 낙원과도 같은 작품이다. 처음부터 끝 까지 그는 밝고 경쾌한 리듬과 따뜻한 보컬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들을 법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첫 트랙 "I Am, She Is, We Are"의 달콤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루시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앨범의 핵심인 "How to Pretend"와 "Mimosa" 역시 그의 매력이 양껏 드러나는 트랙이다. 루시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자신의 보컬, 잔잔한 비트와 풍부한 악기 구성, 그리고 듣기 좋은 멜로디로 트랙을 채워나가며 삶의 작은 행복들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Fête de la Vanille>을 듣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고민들을 잊게 되고, 순간 속의 작은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Fête de la Vanille>은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또 다른 세계이며, 루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세계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빠져들 수 있게 한다.

by 자카

JADED

Toos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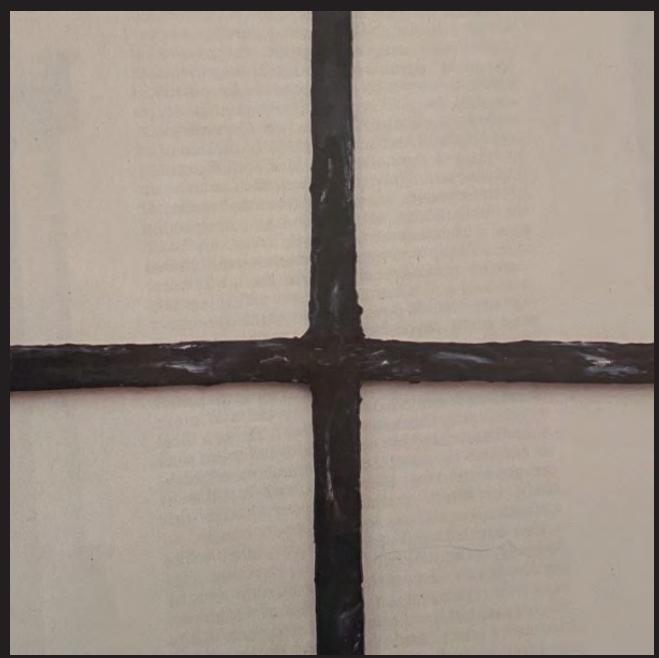
1. Meet Me Outside / 2. Champs Élysées (feat. Gunna) / 3. She Doesn't Mind / 4. Fuk U Mean / 5. Ok...Whatever (feat. Kehlani) / 6. Party Girl Anthem / 7. Clock Work / 8. New Corvette / 9. Fire and Desire / 10. Foxy Brown / 11. I Do (feat. Muni Long) / 12. Fantastic / 13. Sticks and Stones

album release 24.10.04

희한하게도 투시(Toosii)의 러브 송에선 속된 말로 '야마'가 느껴진다. 그의 크루닝은 감미롭지만 다분히 남성적이다. 발라드 풍의 비트에 더해지는 랩 싱잉 퍼포먼스는 LL Cool J의 "I Need Love"를 원본으로 삼은 일련의 파생작처럼 느낄 때도 있다. 다소 양산적이거나 지나치게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곡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쉽사리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파워는 분명 있다. 비주얼 때문일까, 아니면 홈리스 기간을 포함해 어려웠던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서일까? 어쨌든 그의 팝 랩에서 웬지 모를 분투를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항상 자신의 멜로디 테크닉에 짙은 호소력과 두 눈을 부릅뜬(Toos'i'i') 비전을 담아 왔다.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 정규작 <NAUJOUR>에서는 긴 러닝타임과 와이드 스크린을 할애했다면, 믹스테입 <JADED>에서는 TV 드라마의 규모로 비교적 간결하게 비추고 있다. 그럼에도 "Meet Me Outside"를 통해 발단부를 극적으로 연출하고, "Champs Elysees"와 "She Doesn't Mind"에서 그 집중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몰입도를 배가시킨다. 전반적인 프로덕션도 깔끔함과 더불어 섬세한 레이어까지 가져간다. 그의 분투적인 뉘앙스를 모자람 없이 유지한 것을 넘어, 군더더기를 과감히 생략하는 전략을 통해 확고한 카리스마와 스타일리쉬함까지 획득했다.

by 감상주의





Cafe Tom Tom

1. Disks Under Antwerp / 2. NY Occasion / 3. Put Yourself In A Gang /
4. Guess Who / 5. The Afters / 6. Silver & Ice / 7. Mid-West Occasion /
8. Blown On A Rooftop / 9. The Fuck / 10. Sin Tactic / 11. Morscher /
12. Exotica Press / 13. Geneve / 14. Pool of Ash. / 15. Nineteen / 16.
Vernacular Drawings

album release 24.10.11

2024년 시티즈 아비브(Cities Aviv)의 발매작들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짧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올드스쿨 EP <Bernadette Leak> 이후, 또 다른 정규 앨범 <Cafe Tom Tom>으로 돌아온 그는 청자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의구심을 자아낸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음악은 항상 최면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작에서 그는 아예 앰비언트 장르를 시도하며 그야말로 마취와도 같은 음악을 선보인다. 물론 그의 보컬 역시 가끔씩 등장하나, 모두 굉장히 희미하고 가사도 존재하지 않아 이를 눈치채기는 굉장히 힘들다. 결국 인스트루멘탈 힙합/앰비언트 음악으로 칭할 수 있는 <Cafe Tom Tom>은 몇 번의 감정적인 순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특별한 변주 없이 지루하게 흘러간다. 갑자기 "The Fuck"이 들려오며 토를 쏠리게 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시티즈 아비브는 나름의 야망을 갖고 본작에 임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아 그 어떠한 공감이나 의도한 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Cafe Tom Tom>은 원초적으로 굉장히 불쾌하며, 여러 아이디어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특정한 방향성 역시 찾기가 힘들었다. 슬프지만, 그의 커리어 로우라 칭해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 작품이다.

by 자카

Cities Aviv



Piece By Piece - Music from the Motion Pi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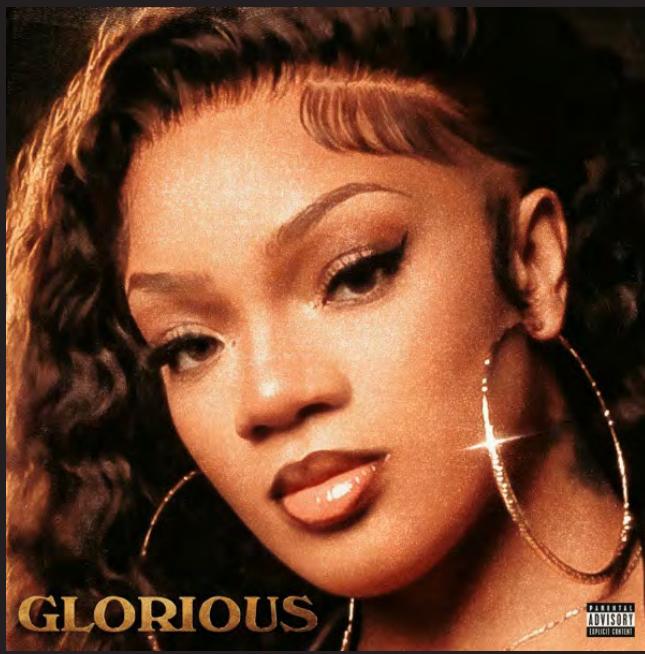
Pharell Williams

1. It's Happening / 2. Piece By Piece / 3. VIRGINIA Boy / 4. L'EGO Odyssey / 5. For Real / 6. Maybe - N.E.R.D / 7. God Bless Us All - N.E.R.D / 8. Señorita - Justin Timberlake / 9. Rock Star - N.E.R.D / 10. Rump Shaker - Wreckx-N-Effect / 11. Something - N.O.R.E / 12. I Just Wanna Love U (Give It 2 Me) - JAY-Z / 13. Hella Good - No Doubt / 14. Drop It Like It's Hot - Snoop Dogg, Pharell Williams / 15. Grindin' - Clipse / 16. Frontin' / 17. Beautiful - Snoop Dogg, Uncle Charlie Wilson, Pharell Williams / 18. Sooner or Later - N.E.R.D / 19. Get Lucky - Daft Punk / 20. Happy / 21. Alright - Kendrick Lamar

album release 24.10.11

규정상 ‘소개글’에 포함되었지만, <Piece By Piece - Music from the Motion Picture>는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트렌드의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의 대표곡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를 다룬 바이오픽의 사운드 트랙답게, 이 앨범은 퍼렐의 중요한 음악적 순간들을 조각조각 모아 완성되었다. The Neptunes의 일원이자 N.E.R.D의 멤버, 그리고 퍼렐 자체로서 함께한 “Rump Shaker”, “Frontin”, “Señorita”, “Get Lucky”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에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은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영화 제작을 위해 추가된 다섯 곡 역시 퍼렐의 도전의식을 담고 있다. 온미적인 편곡과 깔끔하지 못한 막힘이 아쉬운 “Piece By Piece”를 제외한다면, “It's Happening”과 “L'EGO Odyssey”는 극적인 청각적 연출을, “VIRGINIA Boy”는 The Neptunes 스타일의 미니멀한 붐뱁 위에서 Tyler, the Creator와 함께 오랜만에 랩을 하는 퍼렐의 모습을 담았다. 시대를 초월한 트랙들로 채워진 이 앨범은 신규 앨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지 않은 청각적 쾌감을 선사하며, 우리가 퍼렐의 시대를 살아왔음을 상기시키는 노스탤지어 트리거와 같다.

by denim



GLORIOUS

GloRilla

1. INTRO / 2. HOLLON / 3. PROCEDURE (ft. Latto) / 4. TGIF / 5. WHAT-CHU KNO ABOUT ME (ft. Sexy Red) / 6. STOP PLAYING / 7. DON'T DESERVE (ft. Muni Long) / 8. RAIN DOWN ON ME (ft. Kirk Franklin, Maverick City Music, Kierra Sheard, Chandler Moore) / 9. GLO'S PRAYER / 10. HOW I LOOK (ft. Megan Thee Stallion) / 11. I AIN'T GOING / 12. STEP (ft. Bossman Dlow) / 13. LET HER COOK / 14. I LUV HER (ft. T-Pain) / 15. QUEEN OF MEMPHIS (ft. Fridayy)

album release 24.10.11

글로릴라(GloRilla)는 다소 미미한 2023년을 보냈다. "F.N.F. (Let's Go)"와 "Tomorrow 2"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녀의 데뷔 EP <Anyways, Life's Great>과 레이블 컴필레이션 앨범 <Gangsta Art 2>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시피 하여 그녀가 잊히고 있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 역시 들려왔다. 그렇기에 그녀의 새로운 앨범, <GLORIOUS>는 다소 위태위태한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견고히 할 작품이 되었어야 했을 테다. "영광"을 뜻하는 앨범의 제목명처럼, <GLORIOUS>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스펠적인 요소가 잔뜩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어릴 적 꿈이 복음 가수였다고 밝혀졌던 것처럼,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를 수차례 내비치며 여러 홀리(Holy) 한 트랩 뱅어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WHATCHU KNO ABOUT ME"이나 "PROCEDURE"와 같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트랙들 역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듣는 재미 역시 확실하게 보장한다. 생동감 넘치는 <GLORIOUS>는 그 제목에 걸맞은 앨범이 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 작품이며,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욱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by 자카



May It Never Fa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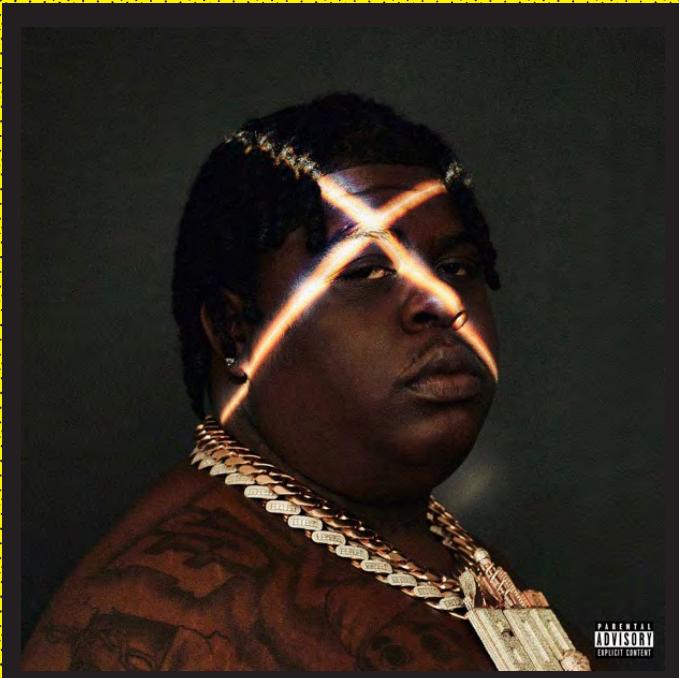
glaive

1. For God and Country / 2. 60.000 ISK / 3. Count It Up / 4. ik / 5. joel / 6. Live & Direct (ft. kurtains) / 7. Knock, Draw, Release / 8. EVERY-DOG HAS ITS DAY / 9. Freudian / 10. Nobodys Fault / Accept My Own / 11. By Birhtright

album release 24.10.11

글레이브(glaive)가 갖고 있는 고질병은 항상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정작 이를 제대로 꽂피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앨범 <May It Never Falter>에서 그는 또 한 번 이를 개선해 내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기에 이른다. 여전히 그의 음악은 (간헐적으로) 신선한 순간들이 존재한다. 글레이브는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다룰 줄 알고 있으며, 멜로디와 앨범 메이킹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진 지식들의 넓이와 깊이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이었다. 글레이브의 무수히 많았던 아이디어는 본작에서 또 한 번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채로 사라져버렸고, 곡의 들쭉날쭉한 길이와 원활하지 못한 멜로디의 흐름은 고조되려는 감정과 앨범의 감상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작사에 있어서도 거의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글레이브는 본작에서 또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데에 실패한다. 분명 <May It Never Falter>에는 여러 흥미로운 아이디어들과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이 온전히 꽂 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아쉬움이 또 남게 되었다. 글레이브에게는 지금 같은 다작이 아닌, 긴 노력의 시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by 자카



TAKE CARE

BigXthaPlug

1. Take Care / 2. Lost The Love / 3. Change Me / 4. Leave Me Alone / 5. Therapy Session / 6. Planting Seeds / 7. Words from WALLO267 / 8. Law & Order / 9. Back on my BS / 10. 2AM / 11. Story of X / 12. The Largest / **13. Mmhmm** / **14. Rich Off Rap** / 15. They Don't Know

album release 24.10.11



Goodbye Horses

ian

1. Showboat / 2. Till I Die / 3. 3.5 / 4. On the Floor / 5. My Call / 6. Out West / 7. Sh*t Sad (feat. Chief Keef) / **8. End Up Gone** / 9. Older (feat. Reign) / 10. Loco / 11. Hate Me (feat. Lil Yachty) / 12. Off That Sh*t / 13. Goodbye Horses (feat. Eysis)

album release 24.10.18

빅엑스다플러그(BigXthaPlug), 음악 정말 못할 것처럼 생긴 외모와 달리(...) 나름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래퍼이다. 전작 <AMAR>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나 발매된 <TAKE CARE>에서 그는 올해 가장 강렬하고 직설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사실 훌륭한 MC로서의 조건으로는 충분한 자신감과 유려한 플로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빅엑스다플러그는 그 둘을 모두 잡아 30분 내내 일관되게 훌륭한 래핑을 선보인다. 여러 놀라운 샘플들을 차용한 눈부신 프로덕션 위에서 그는 길다 느껴지지 않게 — 욕심을 최대한 내려놓았지만 동시에 재미와 잠재력을 모두 폭발시킨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점은, 전작 <AMAR>와 너무나도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그가 먼 훗날 다른 어떤 신박한 음악을 선보여줄지 그 어떤 예측도, 또 기대도 되지 않는다는 점. 물론 이 정도의 작품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테지만, 그에게 신선한 혁신을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by 자카

이안(ian)은 올해 가장 많은 하이프를 받아오던 아티스트였다. 영혼 없기 짹이 없던 데뷔 믹스테입 <Valedictorian>을 기점으로 그는 TikTok 등 여러 솟폼 매체들을 통해 바이럴 되었고, Lil Yachty, Chief Keef와 같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이루어내며 순식간에 인지도 있는 래퍼로 성장했다. 심지어 몇몇 이들로부터는 '2020년대 최고의 백인 래퍼'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중… 그리고 이안은 보기 좋게 그의 정규 앨범 <Goodbye Horses>에서 이가 틀린 사실임을 몸소 증명한다. 본작에서 이안은 음악에 어떤 의미를 담기보다는, 단순 허황된 트렌드만을 좇으며 현대 Pop Rap 장르가 가진 피상적인 면모를 더욱 적나라하게 부각시킨다. 이안은 Q Lazzarus의 명곡 "Goodbye Horses"의 이름을 떳떳하게도 빌려오며 성의도, 의미도 없는 트랩 비트 위에 '틸 대로 되라는 식' 래핑을 내뱉는다. 이안에게는 그 어떤 독창성도, 진정성도, 또 재능도 없어 보인다. <Goodbye Horses>는 그저 알팍하고 무의미한 상업적 산물일 뿐이다. 이안이 최고의 백인 래퍼라고? 차라리 mgk라 하는게 더 설득력 있겠다.

by 자카

Full
Review

HATTON
GARDEN
HOLDUP

F
S
U
C
T

KEEP
HOLLY
ALIVE =

REEDWOOD

LYFE of God

STYLED

Glimmer
Re Birth

DC The Don

HATTON GARDEN HOLDUP

by
moogsick

ROME STREETZ & DARINGER

분명 그리젤다의 2020년대는 화려했다. 수많은 대형 스타들의 크레딧에 수장 Westside Gunn을 비롯한 그리젤다 소속 래퍼들의 이름이 올라갔으며, 발매하는 음반 역시 대중과 깐깐한 스텠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수했다. 비록 주 장기를 버리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몇 번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되어 이들의 사이클도 이제 끝난 것인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삼형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눈을 돌렸을 땐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바로 롬 스트리츠(Rome Streetz)가 그 주인공이다.

돌이켜보면 2021년 그리젤다와 계약을 맺은 후 발매한 <KISS THE RING>부터 범상치 않았다. Conductor Williams의 조력 하에 50분 동안 쉴 새 없이 뱉는 랩은 마니아의 갈증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DJ Muggs가 눈여겨볼 정도로 유망한 래퍼였기에 언더그라운드 블랙 밸브의 본산과 함께함은 마치 등에 날개를 단 것과도 같았다. 이후 <Wasn't Built in a Day>, <Noise Kandy 5> 등으로 잽을 날리던 중 그리젤다의 인하우스 프로듀서 대린저(Daringer)와 뭉쳐 내놓은 <Hatton Garden Holdup>은 그야말로 강력한 한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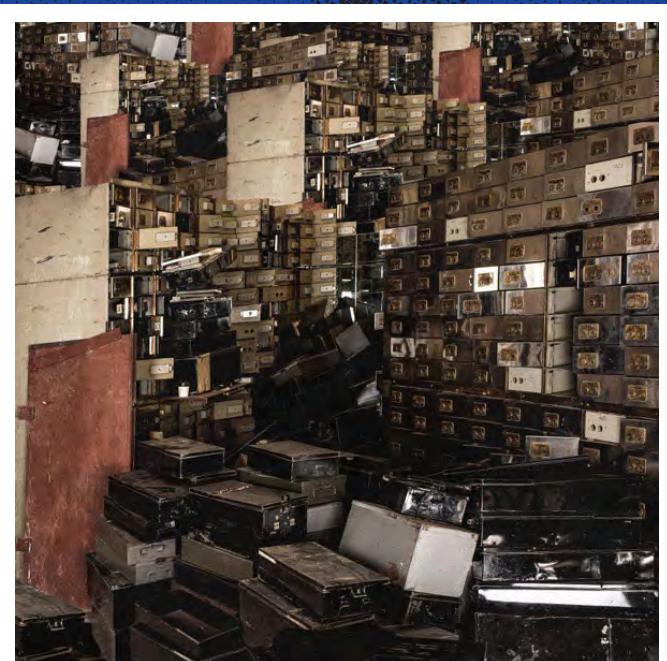
<Hatton Garden Holdup>을 구성하는 요소는 간단하다. 롬 스트리츠의 탄탄한 래핑과 대린저가 주조한 수준급 비트 - 사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블랙 앨범의 조건은 이미 만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느 누가 808 같은 불순물을 필요로 했던가. ‘2018년 이래로 대린저가 모든 비트를 만든 그리젤다 앨범이 있는데, 팬들은 바로 그런 걸 원한다. 이 앨범이 원래의, 클래식 그리젤다다.’라는 롬 자신의 자신만만한 말은 그 완성도로 인해 납득 가능해진다. 묵직하게 내려앉은 신디사이저로 포문을 여는 “Ace of Bass”, 대린저의 장기인 텁텁한 질감 드럼의 “Starbvxkz”도 훌륭하지만 진짜는 이어지는 6트랙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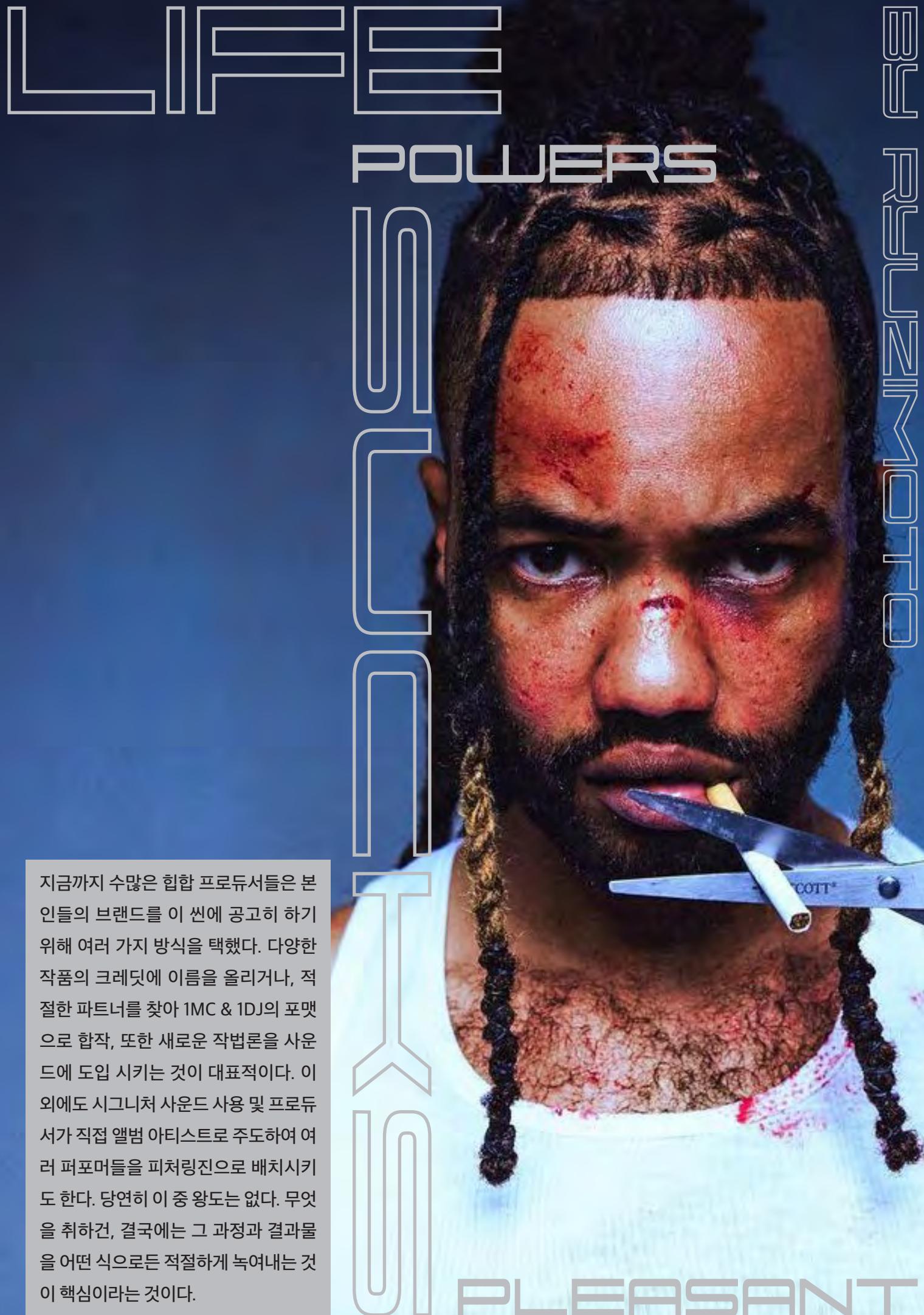
ScHoolboy Q와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한 “Sage”부터 한껏 왜곡한 일렉 기타 사운드의 “Drive By”, 보다 일반적인 블랙처럼 드럼을 강조하되 멜로디 루프로 청자의 귀를 잡아끄는 “Cadillac Smoke”까지, 그리젤다의 태동기를 연상케 하는 비트 위에서 롬 스트리츠는 한결같은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그의 말마따나 팬들의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는 성격의 음악을 들고나온 것이다. 다소 전형적일지언정 웰리티 하나만큼은 근래 동부 힙합 씬에서 나온 작품들 중 손에 꼽을 정도다. 개중 단연 뛰어난 지점은 역재생한 루프와 짜르는 듯한 사운드를 뚫고 타이트한 플로우를 이어나가는 “100 Schemes” - “Spike”. 가히 그리젤다 스타일의 완벽한 정의라 할 만하다.

잠시 트랩으로 외도했던 두 큰형님 Westside Gunn과 Conway the Machine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을 보여준 “Black Widow”와 “Pro Tro”를 지나 드럼리스와 차퍼 래핑의 조화가 이색적인 “Space X”, 엔딩 “Heavy Traffic”에 이르러 떠오르는 결론은 단 하나. 바로 현재 그리젤다 내, 혹은 뉴욕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최고의 랩 기술자는 롬 스트리츠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부분을 소거하고 잔재주 없이 서로의 장점만을 오롯이 살려 IMC/1PD 조합의 미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물도 그토록 바라 오던 올드 그리젤다를 그대로 구현해 냈다니, 어느 블랙 애호가가 이 음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 Ace of Bass / 2. Starbvxkz / 3. Sage (feat. ScHoolboy Q) / 4. Drive By / 5. Cadillac Smoke (feat. Meyhem Lauren) / 6. Black Widow (feat. Westside Gunn) / 7. 100 Schemes / 8. Spike / 9. Pro Tro (feat. Conway the Machine) / 10. Weight of the World (feat. Cormega) / 11. Jimmi's Headband / 12. Space X / 13. Reap What You Sow / 14. Heavy Traffic

album release 24.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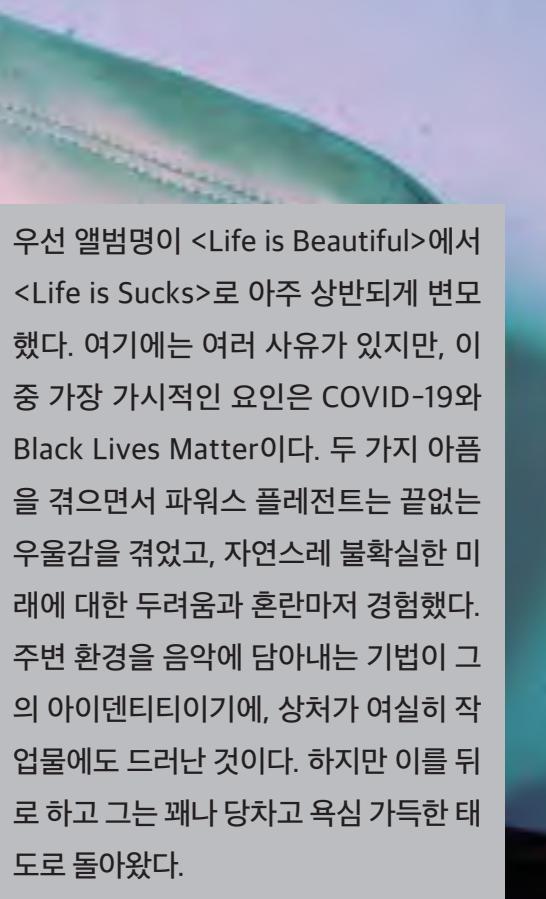




지금까지 수많은 힙합 프로듀서들은 본인들의 브랜드를 이 씬에 공고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택했다. 다양한 작품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거나,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1MC & 1DJ의 포맷으로 합작, 또한 새로운 작법론을 사운드에 도입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시그니처 사운드 사용 및 프로듀서가 직접 앨범 아티스트로 주도하여 여러 퍼포머들을 피쳐링진으로 배치시키도 한다. 당연히 이 중 왕도는 없다. 무엇을 취하건, 결국에는 그 과정과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든 적절하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W
E
B
U
L
C
N
I
O
T
O
T
O
P
L
E
A
S
A
N
T

Joey Badass, Kirk Knight 등이 속해 있는 브루클린의 대형 힙합 크루인 Pro Era 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파워스 플레전트 (Powers Pleasant)는 2019년 BTS의 싱글 “All Night”에도 참여한 독특한 이력으로 한국에서도 꽤나 친숙한 프로듀서이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명함이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같은 해에 앞서 언급한 방식 중 하나인 직접 메인 앨범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첫 정규 <Life is Beautiful>을 발매했다. 아쉽게도 평단과 대중들을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가 2024년 후속작 <Life is Sucks>를 통해 더 큰 볼륨으로 본인의 심정을 담아내어 다시금 증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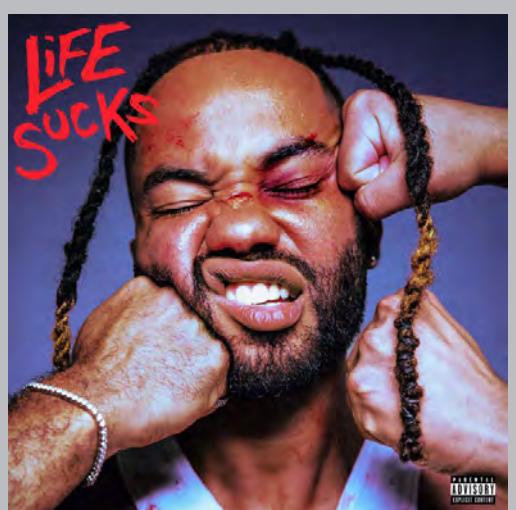


우선 앨범명이 <Life is Beautiful>에서 <Life is Sucks>로 아주 상반되게 변모했다. 여기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 중 가장 가시적인 요인은 COVID-19와 Black Lives Matter이다. 두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파워스 플레전트는 끝없는 우울감을 겪었고, 자연스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마저 경험했다. 주변 환경을 음악에 담아내는 기법이 그의 아이덴티티이기에, 상처가 여실히 작업물에도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뒤로 하고 그는 꽤나 당차고 욕심 가득한 태도로 돌아왔다.



현재의 소스와 더불어 과거의 흐름까지 포착한 본 앨범, <Life is Sucks>는 여러 바운더리를 활용한 하나의 콜라주로 구축되어 있다. 소울풀한 샘플 위 저지 클럽을 오려붙인 “Shmoke”, 서정적인 트랩과 이모 락을 한데 묶은 “That’s Tough”가 이를 증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Know Me Now”에는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단단한 질감의 드럼을 공존시키며, “Baby Boy Is Drunk”에는 2000년대 초중반의 힙합 댄스 플로어 뱅어를 터트린다. 해당 트랙을 포함, 모든 트랙에 Joey Bada\$\$, Denzel Curry, DC The Don, Audrey Nuna 등 수많은 피처링 진이 번쩍이는 에너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파워스 플레전트는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고자 투쟁한다. 초반부인 인트로와 2번 트랙 “Rumble”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반대로 중후반에서는 고통을 성찰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물론, 전작에서도 드러난 중구난방한 콘셉트와 가끔 현 트렌드와 빗나가는 사운드 문제점이 보완되기는 했으나, 아직 완벽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Life is Sucks>를 통해 그가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단단해진 것처럼, 이 또한 성장 과정이 아닐까? 역시나 한 아티스트의 솔직한 면모와 성장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완벽한 프로덕션 퀄리티가 주는 쾌감보다 가끔은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1. Endtro (Feat. Denzel Curry & Hannah Mundine) / 2. Rumble (Feat. Joey Bada\$\$)
- / 3. Galore (Feat. DC The Don) / 4. **Shmoke (Feat. Armani Caesar & A\$AP Ferg)** / 5. Bandoe (Feat. Denzel Curry, Meechy Darko & Soulja Livin' Tru) / 6. Ball Alone (Feat. Joey Bada\$\$ & Saba) / 7. Know Me Now (Feat. DC The Don) / 8. That's Tough (Feat. \$NOT) / 9. PAMPER PAMPER by Dro Kenji, Mike Dimes & Powers Pleasant / 10. **Baby Boy is Drunk (Feat. AG Club & AUDREY NUNA)** / 11. I'm The Shit (Feat. Guapdad 4000 & P-LO) / 12. Wassup (Feat. Jasiah & Tkay Maidza) / 13. SMH (Feat. Aaron Rose, CJ Fly, Joey Bada\$\$ & Nyck Caution)

album release 24.10.04



뮤턴트 아카데미(Mutant Academy; 이하 뮤턴트로 통칭)의 완전체 출사표 <Keep Holly Alive>는 리치몬드 씬에 대해 뒤늦게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앨범이다. 전통을 뉴욕에서만 찾던 필자를 반성하게 만든다. 골든 에라의 신세기를 Roc Marciano나 Griselda Records로부터만 찾으려 했던 것은 물론 필자의 무지다. 심지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어렵잖하게나마 알고 있었고, 눈여겨볼 만한 그룹으로 점 찍어 놓았음에도 말이다. 올해 Boldy James나 Mach-Hommy 등의 활약에 정신이 팔린 사이 금세 그들을 또 잊고 말았다.

어설프게 항변하자면, 그들은 크루의 이름으로 작업물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다. 멤버들은 하나 같이 미디어에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거나 스타가 되는 것에 애쓰기는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는 외골수들이다. 그나마 서로 간의 협업은 대부분 스포티파이가 아닌 밴드캠프에 공개돼있다. 애초에 필자가 그들이 있단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계기도 오피셜 릴리스가 아닌, 다른 뮤지션들에 대한 칼럼을 읽던 중 우연히 접한 짧은 언급들에 불과하다.

그 사이에 활동이 전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는 다작 및 근면함을 보여 온 이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공식적인 첫 활동은 분명 올해 <Keep Holly Alive>로 봐도 무방하다. 대략 십여 년 만에 이뤄낸 완전체의 성립이다. 황당한 것은 다 같이 모이는 것만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녹음부터 완성까지 두 달이면 충분했다고. 어째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구태여 생색을 내지 않았을 뿐, 결성 이래로 그들은 고향에서 항상 일상을 함께하며, 모여서 랩을 하고 합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 무대가 소셜 미디어가 아닌 Holly Block이라고 하는 스튜디오와 리치몬드의 언더그라운드 현장이었을 뿐이다.

그곳에서 어떤 작업과 공연들이 주로 이뤄지고, 어떤 기류가 흐르는지에 대해 직접 체감해 보지 않는 이상 필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남부의 피만이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본인들과 평단이 그들의 출생을 어필하지 않았다면, 뉴욕에서 온 마

피아들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 이것을 마냥 스테레오타입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들의 정체성이 Wu-Tang Clan과 Ghostface Killah, 혹은 Talib Kweli 등의 동부 전설들로부터 빛을 지고 있음을 스스로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아 온 영향을 계승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는 '충실힘'이다. 따라서 <Keep Holly Alive>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매력은 향수를 향한 자극과 근본에 대한 충족일 것이다. 때로는 흑조차 없이 샘플 위에 묵묵히 이뤄지는 플레이어 셋-플라이 아나킨(Fly Anakin), 헤니 L.O.(Henny L.O.), 빅 카후나 오지(Big Kahuna OG)-의 연쇄적인 벌스 교차는 길거리 사이퍼를 보는 듯하다. 그 거리는 곧 빌딩 사이로 Dumbo Bridge가 보이는 1990년대 브루클린이 아닌, Hull Street Road의 양옆에 줄지은 상가들이 보이는 2020년대 리치몬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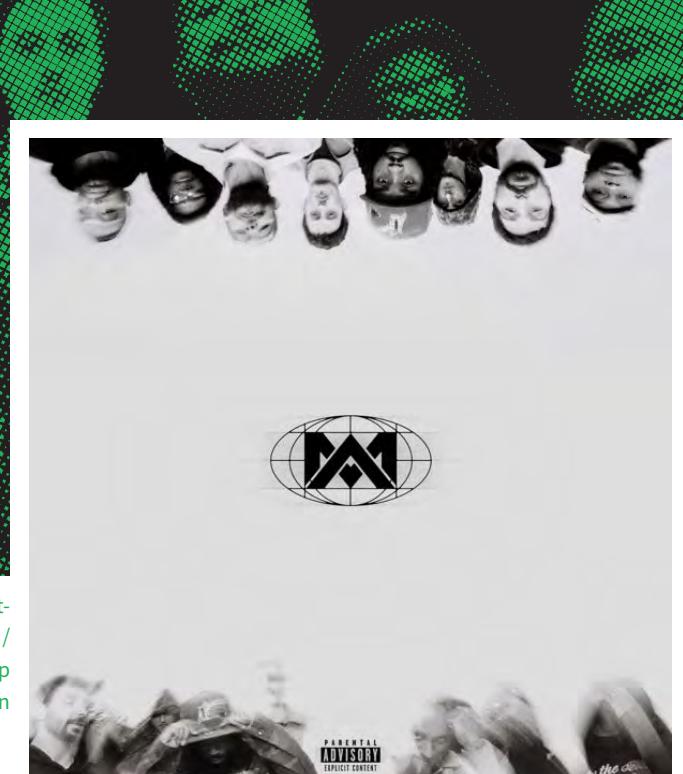
셋의 규칙 없는 릴레이에 무려 여섯 명이나 되는 프로듀서들이 기꺼이 장을 깔아줄 수 있는 의지의 바탕은 전적으로 그들끼리의 깊은 유대감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같이 랩의 조력에 집중할 뿐, 자신들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과시를 일절 하지 않는다. 그 외에 그들이 주력한 것은 누아르와 퓨어리즘의 미학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한 것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를 단지 답습과 재현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영향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하나로 만든다. 그들의 누아르는 클래식과 네오를 아우르고 있다. 각 곡마다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나누려는 시도조차 할 새 없이 말 그대로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나킨의 랩에는 AZ와 Westside Gunn이 동시에 들릴 수 있다. 포이지(Foisey)와 그레이매터(Graymatter)가 프로듀싱한 "Fate on My Side"나 "Stay Forever"에서는 RZA와 Madlib, Conductor Williams가 삼중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리치몬드 랩 씬의 부흥과 힙합을 향한 애정 그 자체일 뿐이다. 일찍이 아나킨과 Pink Siifu의 두 합작 - <Flysiifu's>, <Smokebreak EP> - 의 앨범 아트워크에서 바이닐 샵 현장을 묘사해 그들의 영감과 주제가 철저히 힙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Keep Holly Alive>는 그 한자리에 아나킨 포함 아홉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 셈이다. 비밀스러웠던 자신들의 아지트를 힙합 씬의 새로운 허브로 각인시키기 위해 비로소 의기투합했다. 그곳이 남부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전주의와 퓨어리즘으로부터 돋한 비트와 라임을 뽑아냄으로써 고향을 문화적 성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

1. Intro / 2. Peace God / 3. Favoritism / 4. Space Time Continuum / 5. Straight-back Santiago / 6. Paranoid / 7. Check Ya Source / 8. Rock, Paper, Scissors / 9. Computer Blue / 10. Too Accessible / 11. Fate on My Side / 12. Beam Me Up / 13. Fatherless Flow / 14. Start Prayin' / 15. Scheme Sunday / 16. Liberation (feat. Quelle Chris) / 17. Birthstone / 18. Stay Forever

album release 24.10.08





H L U O I D ॥자카

2023년 힙합씬은 billy woods의 것이었다. Kenny Segal과 함께한 <Maps>는 많은 이들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Armand Hammer 명의로 발매한 <We Buy Diabetic Test Strips> 역시 앱스트랙 힙합 씬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엘루시드(E L U C I D)는 그의 조력자였다. 그는 <Maps>에서는 피처링 아티스트로서, <We Buy Diabetic Test Strips>에서는 메인 아티스트로서 엇나가지 않는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아니, 정확히는 준수하기만 한 퍼포먼스라는 표현이 맞겠다. billy woods의 아성에 가려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엘루시드는 두 작품에서 모두 항상 자신의 전부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billy woods의 뒤클무니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의 랩과 가사, 결정적으로 음악은 다른 앱스트랙 힙합 아티스트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고 기본적인 수준이었고, 또 덜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9번째 정규 앨범, <REVELATOR>는 다르다. 본작에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일종의 해방감까지도 느끼게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듬뿍 담아낸다.

<REVELATOR>는 그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봐도 더욱 거칠고 어둡다. 본작에서는 강렬한 인더스트리얼 사운드가 가장 눈에 띄는데, 노이즈가 한껏 가미된 텍스처와 음산해진 분위기로 말 그대로 청자를 압도한다. 이런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는 트랙은 오프너 "THE WORLD IS DOG"이다. 엘루시드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은 본 트랙은 인더스트리얼 힙합과 드럼 앤 베이스, 또 록을 결합해 과거가 자신들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의 래핑은 마치 무너진 도시를 묘사하듯 음울하고 냉철하며, 잿빛과도 같은 본 앨범에 어두움을 한껏 더해준다.

엘루시드가 그의 솔로작에서 가장 많이 받아왔던 비판은 바로 욕심이 너무 과했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기보단 여러 장르와 음악들을 혼합해 하고 싶은 말들을 잔뜩 푸념해놓던 전작과는 달리, <REVELATOR>의 송라이팅과 리릭시즘은 더욱 간결해졌다. 본작은 그의 실험성이 최고조에 달한 작품이지만, 동시에 이전에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곡 구성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에 집중한다. <REVELATOR>의 가사는 함축적이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그리며,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혼란들을 그대로 담아냈다. "YOTTA-BYTE"나 "VOICE 2 SKULL"과 같은 트랙들에서 그는 짜임새 있는 라임 배치와 함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두운 감정들을 파고들며, 이전의 그에게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게끔 한다.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참여했음에도 <REVELATOR>와 엘루시드가 자신만의 색을 찾고 흔들림 없이 앨범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 역시 인상적인 부분이다. Jon Nellen, DJ Haram, August Fanon, Saint Abdullah, Samiyam, Andrew Broder, The Lasso, Child Actor, 그리고 엘루시드 자신까지. 많은 프로듀서들이 힘을 보태 제작된 <REVELATOR>는 앰비언트, 드론, 노이즈, 글리치, 앱스트랙 힙합 등 수많은 장르들이 왜곡된 상태로 섞여져 있으나 엘루시드의 래핑, 또 다른 세션들의 연주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SLUM OF A DISREGARD"에서 그는 클라우드 랩과 사운드 콜라주 기법을 결합하여 앨범의 실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Luke Stewart의 단단한 베이스 라인과 그루비한 엘루시드의 래핑이 함께 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엘루시드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을 날카롭게 담아낸 가사와 그 위에 얹힌 바리톤의 보컬 역시 <REVELATOR>만의 색을 추가하는 지점이다. 그는 본작에서 특유의 추상적인 표현들을 통해 억압과 불안, 저항의 정서를 담아내며 청자에게 여러 질문들을 내던진다. "RFID"에서 그는 권력의 남용과 감시 체제에 대한 불안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IN THE SHADOW OF IT"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끈질긴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그는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을 앨범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그의 보컬 역시 앨범에서 하나의 악기와 도구로 작용하며 비극적이고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REVELATOR>은 결론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이뤄낸 최고의 성취이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단박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더욱 간결해졌고, 동시에 여전히 흥미로운 음악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새로운 면모들을 양껏 뽐냈다. <REVELATOR>는 엘루시드의 돌파구와도 같은 작품이며, 여러 드라마와 스펙터클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심도 있는 감상을 유도한다. <REVELATOR>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이들, 이를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이들, 또 끈질기게 희망을 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되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REVELATOR>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이다.

1. THE WORLD IS DOG / 2. CCTV (feat. Creature) / 3. YOTTABYTE / 4. BAD POLLEN (feat. billy woods) / 5. SLUM OF A DISREGARD / 6. RFID / 7. INSTANT TRANSFER (feat. billy woods) / 8. IKEBANA / 9. IN THE SHADOW OF IF / 10. SKP / 11. HUSHPUPIES / 12. 14.4 (feat. SKECH185) / 13. VOICE 2 SKULL / 14. XOLO / 15. ZIGZAGZIG

album release 24.10.11



진 도슨(Jean Dawson)은 항상 진화를 거듭하던 뮤지션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 앨범마다 과감한 변신을 꾀하며 여러 장르들을 혼합하고 탐구하고자 하였다. <Bad Sports>는 힙합과 평크를 절묘하게 융합시키며 자신의 야망을 한껏 담아낸 작품이었고, 폭발적이었던 <PIXEL BATH>는 더 옥 복잡하고 섬세해진 시도들이 눈에 띄던 도화선이었으며, <CHAOS* NOW>는 그의 실험정신과 정체성이 절정에 달해 완전해진 자아를 확인해볼 수 있었던 하나의 큰 성취였다. 도슨은 항상 틀에 갇혀있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며 여러 세계관을 구축해나갔으며, 또 자신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끔 치밀하게 설계된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현재, 새로운 에라 <Glimmer Of God>에 이르러 지금까지 가장 어두운, 어떤 일종의 종말을 암시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Jean Dawson
B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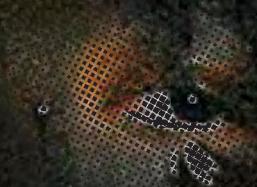
<Glimmer Of God>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지점은 프로덕션에 있다. 그는 본작에서 신스와 스트링 섹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장르를 변주하는데, 그래서인지 전작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몽환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특히 앨범의 선공개곡 "Houston"에서 이가 유독 잘 드러나는데, 포근하게 깔리는 신스 라인과 드럼 라인, 그리고 도슨의 독특한 보컬 톤이 맞물리며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프너 "Darlin'" 역시 주목할 만한 트랙인데, 묵직한 베이스로부터 점점 고조되는 악기 구성 위에서 사랑과 죽음을 심도 있게 다루며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Glimmer Of God>만의 프로덕션은 각각 새로운 청각적 실험을 펼쳐냄과 동시에 일관된 서사를 담고 있어 단박에 청자를 사로잡고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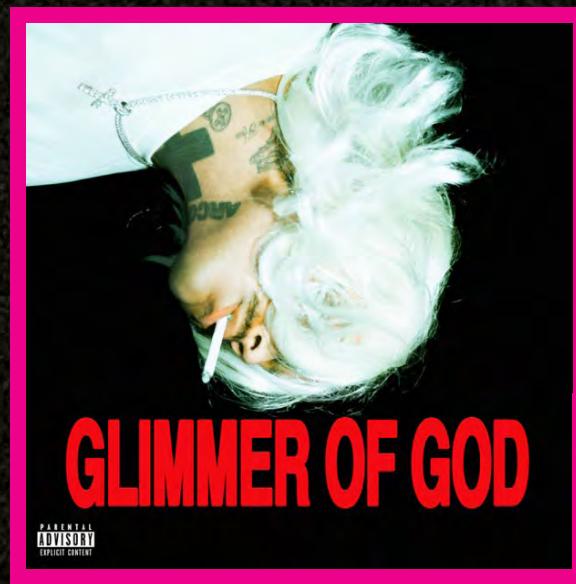
도슨은 앨범 전반에 걸쳐 내면 깊은 갈등과 불안에 직면하며 어둡고 복잡한 서사를 촘촘히 쌓아 올린다. 첫 트랙 "Darlin'"에서부터 그는 사랑과 상실,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The Boy and the Swan"에서 그는 격정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스트링과 신스 사운드를 결합하며 감정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Lil Yachty 와 함께한 "Die For Me"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극대화하며 마치 절박한 호소처럼 들리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특히 "Black Sugar" 같은 트랙들에서 그는 과거에 보여준 강렬한 록-힙합 음악들을 기반으로 한 뒤, 그 위에 80년대 신스팝의 향수를 덧입혀 새로운 질감을 표현해낸다. 앞서 수 차례 언급한 '복합적인 요소가 이루는 조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어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트랙 중 하나이다. 도슨은 경쾌한 비트들 위에서 자유롭게 흐르며 청중들을 매료시킨다. "Slow Heavy Ecstasy"와 "200 Cigarettes"에서도 역시 그는 몽환적인 비트와 전자음을 뒤섞어 독특한 흐름을 이루어내며, 이전의 음악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색깔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바로 앨범이 중후 반부로 흐를수록 다소 정제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분명 신스팝은 그에게 잘 어울리는 새로운 방향성 이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해 원활한 감상에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나타난다. "Paranoid Echo"는 45초의 인터루드가 아닌 4분 길이의 정규곡으로 확장되었어야 했을 트랙이며, "Murciélagos" 역시 마찬가지다. "P4IN" 또한 도슨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대비되는 다소 어울리지 못하는 BONES의 벌스가 눈에 띄어 여려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Glimmer Of God>는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또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본작은 도슨의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는 단 하나의 방향성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본작에서 보여준 그의 테크닉과 송라이팅은 가히 놀라울 수준이다. 본작을 듣다 보면 현재 하이프를 받는 중인 Mk.gee나 Peter McPoland 가 연상되고는 한다. 하지만 도슨은 그들보다 몇 수 위에 있다. 현재 도슨만큼 신선한 사운드를 연이어 선보이는 아티스트는 몇 존재하지 않는다. <Glimmer Of God>는 그가 지금껏 보여준 모든 역량들의 집약체이자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유려한 송라이팅의 전시회이다.



1. Darlin' / 2. Black Sugar / 3. Play Dead / 4. Houston / 5. Paranoid Echo / 6. Die For Me (feat. Lil Yachty) / 7. Slow Heavy Ecstasy / 8. The Boy and the Swan / 9. Murciélagos / 10. You're Bleeding Everywhere / 11. 200 Cigarrates / 12. P4IN (ft. BONES) / 13. Bubba / 14. Electric Children / 15. Kollapse

album release 24.10.18

WEEF

STYEH



Yeet by
SongChico

이트(Yeat)는 지난 1월, <2093>을 발매하며 레이지를 더 먼 곳으로, 더 먼 시간대로 가지고 가며 고유한 영역을 구축했다. 하지만 그는 힙합 씬과 레이지 씬에서 더 옥 큰 명성을 원하는 듯 보인다. 8개월이 갓 지난 시점, 새 정규 앨범 <LYFESTYLE>을 발매해 또 하나의 정규 앨범을 자신의 디스코그래피에 추가했다. <2093>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 이름처럼 미래지향적인 무드와 그 무드에 최적화된 고유한 사운드에 있다. 이트가 직접 상상하고 그려낸 미래의 레이지는 디스토피아이며 시끄러운 클럽보다는 황폐화된 도시에 어울리는, 확실히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올해 초, 2093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던 이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고, 자신과 함께했던 다양한 사운드를 한 작품 내에 담아내며 돌아왔다. 플럭앤비를 변형시킨 레이지 사운드와 컬렉티브를 함께 이끌었던 Summrs의 참여는 사운드클라우드 씬을 선두 하던 Slayworld의 찬란한 그 시절을 회상하게 했다. 그 후에 등장하는 것은 아직 <2093>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그 과도기에 있던 사운드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이트를 상징한다.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레이지 사운드에 강한 킥 드럼과 벨 사운드를 올리며 뱅어로 재탄생시키기도 했으니 본작은 이트의 ‘셀프 트리뷰트’ 앨범과도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가 혁신을 멈추거나 회상에 젖어 과거에 안주할 아티스트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서 나열한 사운드들을 통일된 분위기로 묶어내고 현재의 이트에 최적화한 '<2093> 활용법'은 그의 능력치를 십분 대변해 탁월한 선택으로 느껴졌다. 창작자로서의 날 선 감각이 특히 돋보였던 트랙들은 (“Orchestratë”, “Forever Again”, “Flytroop” 등) 과감한 디스토션과 다양한 사운드의 융합, 고저를 오가는 보컬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했으며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만한 뱅어의 행진이었다.

<2093>이 가져온 이점은 몇 가지 더 존재했다. 앞서 이트는 '<2093>를 통해 내 목소리를 활용하는 법을 깨우쳤다.'라 말할 정도로 그의 주무기인 Ailien Language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곤 했다. (Ailien Language란 커리어 초창기부터 이트와 함께했던 용어로 보컬의 피치를 자유롭게 오가는 이트 특유의 플로우를 의미 한다. 후엔 그의 '외계인' 기억에 일조하게 된다.) 이트는 그 노력의 결과로 진화한 Ailien Language를 갖게 되었고, 이트의 벌스들로 인해 본작은 필러 트랙의 수를 줄이며, '러닝타임이 긴 레이지 앨범' 특유의 단점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트는 <2093>의 세계관을 '이트 유니버스'에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093>의 과정을 통해 깨우친 사운드와 보컬 퍼포먼스 활용을 새 시대로 향하기 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공개한 앨범에 적용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오히려 새로운 음악들을 탄생시켰으니 본작은 혁신과 회상이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관의 등장을 예고했다. 또 동시에 이트가 왜 Playboi Carti의 뒤를 이은 레이지 스타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다.

1. GEEK TIMË / 2. STFU / 3. THEY TELL MË / 4. HEARD OF MË / 5. SPEEDBALL / 6. U DONT KNOW LYFE / 7. ORCHESTRATË / 8. BË QUIET (Feat. Kodak Black) / 9. THE COSTËS / 10. GO2WORK (Feat. Summrs) / 11. GONE 4 A MIN / 12. FOREVER AGAIN / 13. ON 1 / 14. FLYTROOP / 15. ELIMINATË / 16. LYING 5 FUN / 17. NEW HIGH (Feat. Don Toliver) / 18. SO WHAT / 19. LYFESTYLE (Feat. Lil Durk) / 20. GOD TALKIN SHHH / 21. LYFE PARTY / 22. FATE

album release 24.10.18



DC 더 돈(DC The Don)은 최근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감성적인 래핑 위 R&B, 트랩, 레이지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본인만의 사운드와 비전을 구축해나갔으며, 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점점 더 디테일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돈은 항상 자신의 서사와 역량을 더욱 넓게 개척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작품 속에 스며들게 하여 많은 리스너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전작 <FUNERAL>에서 팝 랩 장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확장해나가며 동시에 변화를 모색했다. 새로운 정규 앨범, <REBIRTH>에서 그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을 섞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REBIRTH>는 전작 <FUNERAL>의 연장선상에 놓인 작품이다. 돈은 본작에서 팝 록, 아프로비트 등 새롭고 실험적인 사운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음악적 폭을 한층 더 넓히려는 시도를 보여주는데, <FUNERAL>에서 시작된 팝 랩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일관되게 앨범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이 돋보인다. "KNOCK ME OFF MY FEET"이 이의 가장 적법한 예시인데, 경쾌한 아프로비트 리듬 위 돈은 이전에는 쉽사리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캐치한 래핑을 내뱉으며 그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저울질한다. 또한 "CAN YOU BREATH"와 "BURN THE CITY"와 같은 트랙들에서는 팝 록의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 감성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색깔을 더해 돈의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혀졌음을 입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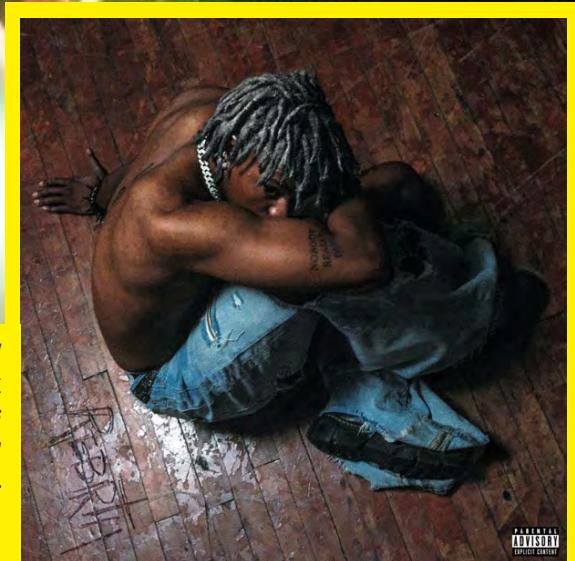
<REBIRTH>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분명 그가 여러 곳으로 발산될 수 있는 그의 가능성을 양껏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FLY ENOUGH TO BE VIRGIL"은 자신이 곧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선포와도 같았고, "HOLY MATRIMONY"와 "VENUS"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송라이터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앨범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트랙이자 하이라이트인 "WILL YOU BE MINE"은 정말이지 경이롭기 그지 없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REBIRTH>에는 돈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스타일적으로 혼란을 겪는 순간들이 있다. "BRAND NEW DRUGS"와 "SATELLITE"같은 트랙들은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트랙들인데, 본 트랙들은 흥미로운 순간들이 제시된 인트로에 비해 갈수록 동력을 잃고 미미하게 끝맺어지는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여러 장르들이 다소 난잡하게 얹혀져있는 감이 있어 적지 않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결국 <REBIRTH>는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돈이 향후 음악적 방향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더 견고해지고 있고, 그 역시 장르적인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색을 찾아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가 도달할 여러 지점들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든다. 몇 년 뒤 씬을 이끌어갈 새로운 래퍼, 그 자리에 돈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 돈은 분명 현재 팝 랩 장르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이며, 앞으로는 한층 더 다듬어진 작품을 만들며 그의 진정성과 서사를 완성해나갈 것이다. 지금이 딱 저점매수 타이밍이니, 다들 놓치지 마시길.

- 
1. SPOTLIGHTS / 2. CAN YOU BREATH? (feat. Hello Forever) / 3. KNIFE IN MY BACK / 4. FLY ENOUGH TO BE VIRGIL / 5. VENUS / 6. LETTER 5 / 7. GOD LEVEL / 8. LOW LIFE ANTHEM (feat. DAMOYEE) / 9. STELLA ROSE / 10. BEST FRIEND ONLY / 11. KNOCK ME OFF MY FEAT (feat. Ambré) / 12. HOLY MATRIMONY / 13. BURN THE CITY / 14. BRAND NEW DRUGS / 15. SATELLITE / 16. HELLO WORLD (feat. Hello Forever) / 17. FLY 2 YOU / 18. WILL YOU BE MINE

album release 24.10.23



Classic Review

GOBLIN
DELUXE

R

GOBLIN

G

Run The Jewels ①

Run The Jewels ②

별님

힙합의 진정한 팬이라면 이들의 만남을 온몸으로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의 익스페리멘탈 힙합을 대표하는 엘피(El-P)와 남부 힙합을 대표하는 킬러 마이크(Killer Mike)의 의기투합, 이들의 진격을 과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시작해, 이젠 원로 아티스트 취급을 받아도 어색하지 않을 두 아티스트. 이들은 런 더 주얼스(Run The Jewels, 이하 RTJ)의 이름으로 새로운 10년에 입성하며 자신들의 실력이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선포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하다.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주먹. 그들의 상징보다도 더 직관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강렬한 음악 그 자체이다.

둘의 인연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엘피가 전곡 프로듀싱 한 킬러 마이크의 정규 5집 <R.A.P. Music>이 다양한 평론지에서 긍정적인 비평을 받게



되고 매니아 간의 반응도 열광적이자, 두 아티스트는 서로가 꽤나 잘 어울리는 팀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후 합동 투어를 기점으로 듀오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엘피와 킬러 마이크는 'Run The Jewels'란 이름으로 2013년 셀프 타이틀 <Run The Jewels>를 발매한다. 폭발적인 반응을 동반한 앨범은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보다 광활하게 알렸다. 데뷔 연차가 꽤 있기에, 최신 트렌드가 아닌 정통 힙합의 미래를 담당할 한 축으로 취급받은 그들의 조합은 그보다 균형 잡힌 형태일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상적인 체제. 더 높은 경지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음악적 기반이 공고하기에, 그들의 미래에 실패란 개념이 발 불일 텐은 부재했다.

"Run the Jewels is the answer, your question is "What's poppin'?"'" 앨범은 분노로 가득 찬 킬러 마이크의 음성과 East of Eden의 "In the Stable of the

Sphinx"를 샘플링한 "Jeopardy"로 시작한다. 초자연적인 베이스 위 킬러 마이크와 엘피는 위협적인 플로우를 과시하며, 색소폰을 위시한 비트 드랍과 함께 그들의 잠재적 정적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킨다. 2010년대 최고의 인트로 트랙으로 선정되기 충분한 호전성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나, 더 경이로운 대목은 이 압도적인 에너지가 38분 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거침없다," <Run The Jewels 2>의 프로덕션을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적합한 언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혼돈 속에서도 비트 체인지를 미학을 준수하는 "Oh My Darling Don't Cry", Zack de la Rocha의 한 마디를 샘플링해 야성적인 힙합 비트로 재탄생시킨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Fuck)" 등 익스페리멘탈의 동의어였던 엘피의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가장 폭발적인 비트들이 본작에 수록되었다.

<Run The Jewels 2>의 프로덕션은 일렉트로니카를 위시한 익스페리멘탈 사운드로 주조한 정통 힙합으로 정의된다. 엘피의 주력은 언제나 전자음악이었고, 그는 어김없이 신시사이저와 드럼 머신을 대동한 채 파괴적인 힙합 사운드를 설계했다. 동시에 적재적소에 가공된 채 사용되는 샘플들은 비트에 역동성을 가미한다. "You Can't Ever Come Down"의 보이스 샘플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Oh My Darling Don't Cry", The Soul Searchers의 "Ashley's Roach-clip"을 기반으로 일렉트로닉 사운드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능하는 "Lie, Cheat, Steal"이 그 예시다. 비교적 단출한 구성과 섹스 컨셉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품격을 훼손한 "Love Again" 정도가 사소한 흠이긴 하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크게 거슬리는 편이 아니다. <RTJ4>까지 발표된 현 시점에서조차 그 어떤 RTJ 프로젝트도 <Run The Jewels 2>의 광적인 폭주에는 비견될

수 없었다.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Fuck)"의 Zack de la Rocha 벌스와 "All Due Respect"를 수놓은 Travis Barker의 파멸적인 드럼 연주, 그것은 오직 본작만의 고유적인 특성이다.

앨범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는 것은 엘피이다. 근 20년간 단련된 익스페리멘탈 비트메이킹 역량으로 그의 고력적인 커리어에서도 최고로 손꼽힐 만한 비트들을 프로듀싱한 만큼, 엘피가 없었다면 RTJ의 음악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랩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킬러 마이크이다. 엘피 또한 앱스트랙 씬에서 잔뼈가 굵은 래퍼이긴 하나, 마이크는 그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마초적인 래핑으로 기존 엘피 앨범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쾌감을 선사한다. 하드코어 힙합이란 명의를 등에 업고 각종 욕설과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는 가운데, 킬러 마이크는 직설적이고 엘피는 포괄적이다. 둘의 특장점이 거세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타협을 본 완벽한 듀오 리릭시즘의 미학이다.

RTJ의 가장 큰 특징은, 익스페리멘탈 힙합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Death Grips로 대표되는 여타 익스페리멘탈 힙합 그룹들과 달리 힙합의 정통성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다. 사운드는 과격하기 그지 없음에도 작법은 엄연히 기성 힙합의 것을 따르는 전략은 기존 엘피의 음악 스타일에서 더 안정적이고 온건하게 변모한 개





정판이다. 또한 퀄러
마이크와 엘피의 폭력적인 하드코
어 래핑 속에서도 그들의 지성이 단발적으로 발휘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Lie, Cheat, Steal", "Early", "Crown" 등
듀오는 때로 진중하게 삶에 대한 촌철살인을 날리는가 하
면, 미국 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비판으로 향후 그들의
방향성을 예고한다. 무겁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힙합. 힙합
의 핵심적인 가치인 그루브가 비트와 랩 양면에서 중시된
결과이다. 이 지점에서 <Run The Jewels 2>는 타 익스페
리멘탈 힙합 앨범들과 차별화되며 기존 힙합 팬들의 지지
까지도 손에 넣는 성과를 이룩한다.

10년이 지났어도, <Run The Jewels 2>는 아직까지도
2014년을 넘어 2010년대 최고의 힙합 앨범 중 하나로 기
록되고 있다. 피치포크와 스테레오컴 등 본작을 2014년 최
고의 음반으로 선정한 평론지들의 찬사, 그리고 코첼라 뮤
직 페스티벌에서 그들을 향한 열성적인 환호를 보낸 매니
아들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장르를 막론하고 음악
팬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알 뿐더러 과거의 전설적인 힙합
듀오들과도 비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곧 <RTJ5>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RTJ의 신
작이라고 한들, 스스로 건설한 <Run The Jewels 2>의 아
성을 초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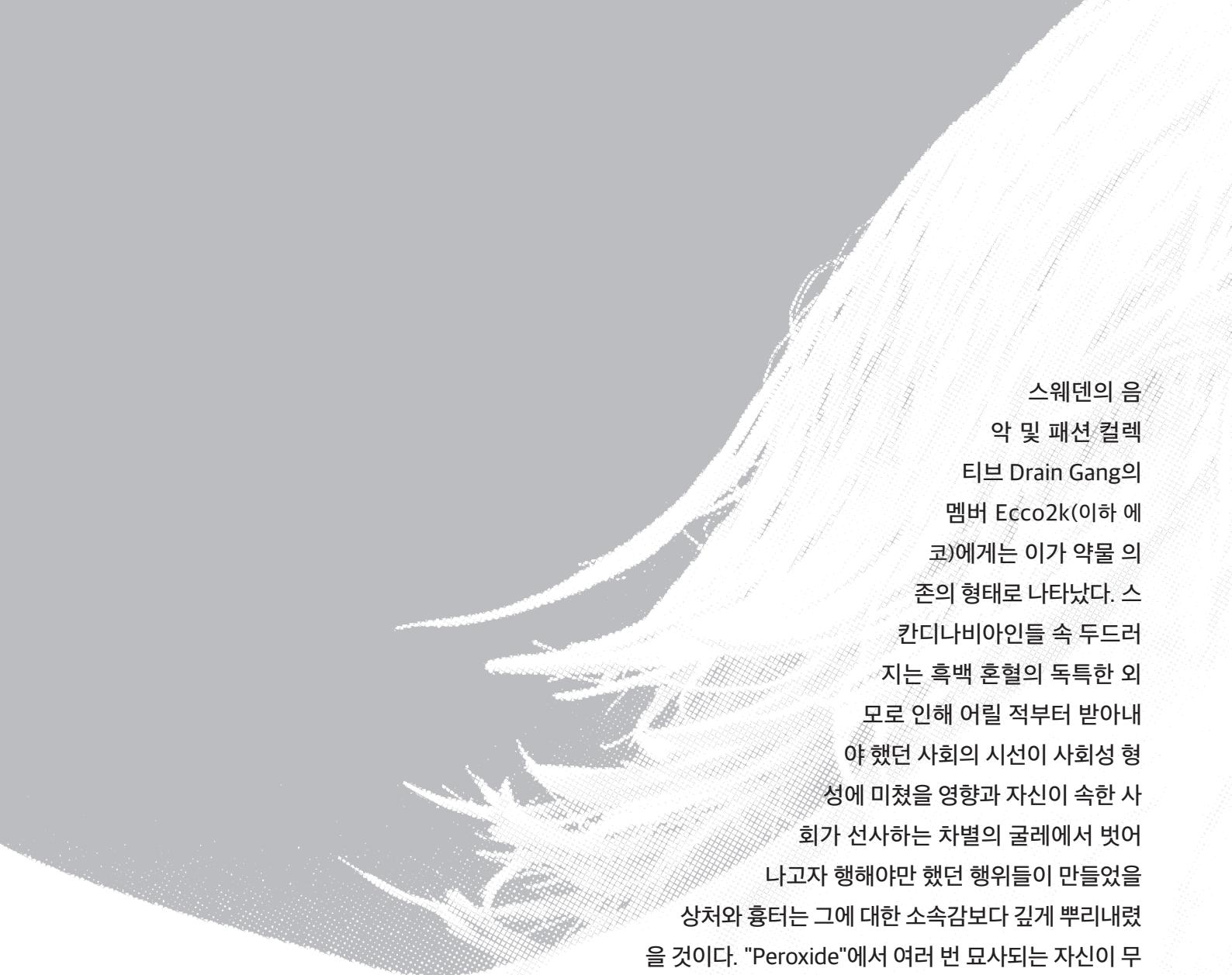
1. Jeopardy / 2. Oh My Darling Don't Cry / 3. Blockbuster Night Part 1 / 4.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Fuck) /
5. All My Life / 6. Lie, Cheat, Steal / 7. Early / 8. All Due Respect / 9. Love Again (Akinyele Back) / 10. Crown / 11.
Angel Duster

album release 14.10.14



ECCOK

by BlackMatter



북유럽 신화에는 세 가지의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전투 중 명예롭게 전사한 자들이 가는 ‘발할라’, 병이나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죽은 자들이 가는 ‘헬헤임’. 마지막 장소 ‘나스트론드’는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남겨진 자들, 즉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세계대전 시절 나스트론드에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살인이었다면, 현재는 ‘고립’이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듯한 고립감은 인간을 점점 사회로부터 떨어트려놓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준다. 이 상처는 자신 또는 다른 생명에게 위험을 가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며, 세계에 만연한 혐오 범죄와 편가르기, 열등감에서 피어난 분노와 이의 전파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음악 및 패션 컬렉티브 Drain Gang의 멤버 Ecco2k(이하 에코)에게는 이가 약물의 존의 형태로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인들 속 두드러지는 흑백 혼혈의 독특한 외모로 인해 어릴 적부터 받아내야 했던 사회의 시선이 사회성 형성에 미쳤을 영향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선사하는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행해야만 했던 행위들이 만들었을

상처와 흉터는 그에 대한 소속감보다 깊게 뿐리내렸을 것이다. “Peroxide”에서 여러 번 묘사되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한 듯 따갑게 쏘이대는 시선들과 팔을 잘라시계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이 모든 고통은 앨범 내의 가사들과 사이키델릭하며 몽환적이고 동시에 미니멀한 프로듀싱으로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다.

에코의 인간관계는 사랑에 있어서도 순탄치 않았던 듯하다. 자신의 과오로 인해 밀어냈던 전 연인에게 비참하고 짜질하게 돌아와달라며 빌기까지 하며, 이러한 스스로에 우매함에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 에코 본인의 완벽주의적 면모를 조금씩 깎어대는 본인의 흠결과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만들어낸 괴리감이 낳은 자기혐오, 그리고 신체 이형 장애는 끊어낼 수 없는 약물 복용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 끝에는 오직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행위. 매일같이 끊어낼 거라 다짐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케타민을 사용하게 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쾌락과 환각의 윤회.

'Double K crystals' 등의 케타민 복용에 대한 비유적 가사는 이 범죄 행위를 우회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깊은 공허함과 우울함의 감정에 우리를 초대하고, 무거운 베이스라인에 쌓아 올려지는 미래지향적인 신디사이저와 실험적인 이펙트들 또한 Ecco2k의 공허함의 심상화에 기여한다. 범죄와 고독 그리고 고통의 낭만화로 풀어내는 흉터. 조금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앨범 전체에 파편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약물 중독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뻔하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에코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이제 한 곳에 담긴 성냥과 등유처럼 조심히 다뤄야만 하는 유약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깨지지 않기 위해 또 베지 않기 위해 에어캡 속에서만 보존될 수 있는 유리조각이 되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끊어낼 수 없는 미약한 의지와 결단력, 주변인들과의 괴리감에 빠져들게 하는 외모, 전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과는 다른 완벽함까지 모두 에코를 나스트론드 속으로 떨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었다. 자기혐오와 케타민의 부작용 중 하나인 메스꺼움, 그리고 자동차의 뒷좌석에 팔이 묶여 앉혀진 듯한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고립감은 나스트론드 속 시간의 흐름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앨범이 마무리될 때까지 에코는 어떠한 반등도 이뤄내지 못한다. 단지 이 모든 고통과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이 비극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재탄생을 꿈꿀 뿐이다. 이 앨범의 가치는 이러한 열린 결말이 극대화시키는 비극적 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양한 비유적 표현 속 녹여 낸 상처들과 약물의 묘사,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환각 효과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환상적인 프로듀싱과 감정의 표출이 극대화된 보컬 퍼포먼스까지. 이 모든 청각적이고 음악적인 요소가 모여 드레인 갱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역작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Ecco2k의 E를 따온 셀프 타이틀 앨범 <E>. 그 속에 담긴 자기성찰적 공감각 예술 작품은 고립된 난파선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GOBLIN (Deluxe)



10월 28일에 발매한 <CHROMAKOPIA>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Tyler, The Creator)의 정규 1집인 <GOBLIN (Deluxe)>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 한다.

첫 트랙인 "Goblin"에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이하 타일러)는 닥터 TC (DR. TC)와의 상담을 시작한다. 타일러는 굉장한 분노를 품고 닥터 TC에게 본인의 대단함, 그리고 폭력성에 대해서 쉴 새 없이 털어놓는다. 트랙의 초반부는 간단한 멜로디 구성으로 음산함만을 유지하지만 5분 14초경에 구성과는 살짝 다른 추가적인 멜로디가 삽입되면서 원가 타일러의 인생사를 들는데 나름 애잔함 마저 느껴진다. 지금에서야 양성애자임을 알고 봐서 그렇지만 '삶은 에스트로젠이 가득' 하다는 구절에서 흥칫 놀라게 될 수 있다.

다음 트랙으로는 타일러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Yonkers". 1번 트랙의 마지막에 닥터 TC가 '뉴욕에 다녀 왔다면서요'라는 가사를 통해 "Yonkers"는 뉴욕의 도시 용커스임을 알 수 있다. 이 트랙에서는 강렬한 반복적인 호러 코어 비트를 기반으로 본인의 자살과 역설적, 이중적인 면모에 대해 설명한다. 4분 3초경에 기존의 비트를 더욱 피지 다운하고 무언가를 저지를 듯 '행동은 생각보다 커지고, 이젠 해야 할 때가 왔어. 죽자'로 트랙은 끝나게 된다. 뮤비와 함께 보면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 밧줄에 목을 매달고 끌이 난다.

"Radicals"은 'Kill people, burn shit, fuck school'만 주야장천 반복하며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소속된 크루 Odd Future Wolf Gang Kill Them All(이하 Odd Future)과 함께 뭔가 난동을 벌일 것만 같은 가사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웃긴 사실은 도입부에서 가사 내용을 따라 하지 말 것을 알리는 것이 웃음 포인트.

"She"는 정말 쉬운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인데, 프랭크 오션의 환상적인 목소리로 스토킹을 담아낸 트랙이다.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생각되는데 호러코어에 R&B의 조화는 기존의 공식을 철저하게 깨부순 스토리 라인이라 생각된다. 순수하거나 혹은 성인의 열정을 말하던 R&B가 범죄적인 집착과 광기의 애증을 담아내는 장르로 변모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일이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타일러의 무대들을 보면 "She"가 얼마나 인기 있는 곡인지 실감할 수 있다.

"Transylvania"는 본인이 드라큘라이면서 얼마나 행패 부리고 다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만큼 폭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사운드도 스포키함의 정점을 달한다.

"Nightmare"에서는 다시 상담을 중점으로 스토리 라인이 흘러간다. 역시나 아버지의 부재로 잘못 성장해 버렸다며 자신을 혐오하고 가족은 Odd Future 멤버들 뿐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타일러 자신에게 머릿속에서 잔인한 일들을 명령 내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바로 다음 트랙명인 "Tron Cat"이다. 그 인격의 잔인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자들을 강간하고 토막살인한 뒤에 유기하는 내용이다. 닉터 TC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화제를 돌리려 타일러가 이야기하던 그녀에 대해 묻게 되며 트랙이 전환된다.

다음 트랙 "Her"에서는 한 여자를 짹사랑하고 그녀는 남자 친구와 재결합하지만, 다행히도 누군가의 사망소식은 들려주지 않는 나름 안전한 트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Sandwiches"에서는 내용의 진행은 더디지만, 자신의 음악을 호러코어로 규정짓는 평론지를 혐오하는 타일러의 입장이 잘 담겨있다.

"Analog"라는 트랙은 한여름밤의 달콤한 사랑이야기로 시작된다. 사운드도 스포키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준의 진행에서 나름 산뜻한 분위기로 전환된 인트로를 들려주며 청자를 안심하게 한 뒤 사랑 중에 살해하는 기괴함을 가져다준다.

여타 트랙들은 광기를 엿볼 수 있다면 "Window"는 이 앨범에서 가장 어두운 트랙이라고 볼 수 있다. 잔잔하게 깔린 마치 심연을 들려주는 것 같은 비트를 사용했다. 닉터 TC는 Odd Future 멤버들을 한 자리에 불렀고 이는 역효과를 불러 타일러와 언쟁을 벌이다 끝에 가서는 멤버들을 전부 총으로 쏘게 된다. 해당 사운드가 아웃트로에 삽입되고 타일러는 절규, 닉터 TC는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트랙은 종료된다.

디렉스를 제외한 마지막 트랙 "Golden"에서는 타일러 본인이 얼마나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하며 아무도 자신에게 질문도 어떠한 신경도 쓰지 않았음을 호소한다. 닥터 TC는 언제나 타일러의 친구며 여태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웃트로에서 풀어나간다. 최종 장의 내용은 매우 커다란 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직접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디렉스 트랙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가되지는 않고 그저 타일러가 벌이는 기행들에 대한 나열일 뿐이다. 세 트랙 중 "Untitled 63"는 인스트루멘탈 트랙인데 인터루드의 기능을 잘 보여주며 스푸키하면서도 타일러가 현재까지 자주 시도하는 인터루드 트랙들의 사운드와 간접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이 <Goblin (Deluxe)>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타일러의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서 여러 얼터 이고들 중 당연하게 살펴봐야 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타일러의 가정사, 그가 겪었던 불행, 분노하는 내면 등 얼마나 그가 광기 어려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타일러란 아티스트를 안다."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임을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마다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짚자면 같은 Odd Future 멤버인 Earl Sweatshirt가 그로테스크한 가사 탓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강제 유학을 가야 했었고 그 때문에 Odd Future에서는 Free Earl 이벤트가 열린 적이 있는데 다양한 트랙에서 Free Earl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청자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 금기 탓에 상상만 할 수 있던 터부가 있다면 그 판타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던 각자의 Goblin을 이 앨범을 통해 한 번쯤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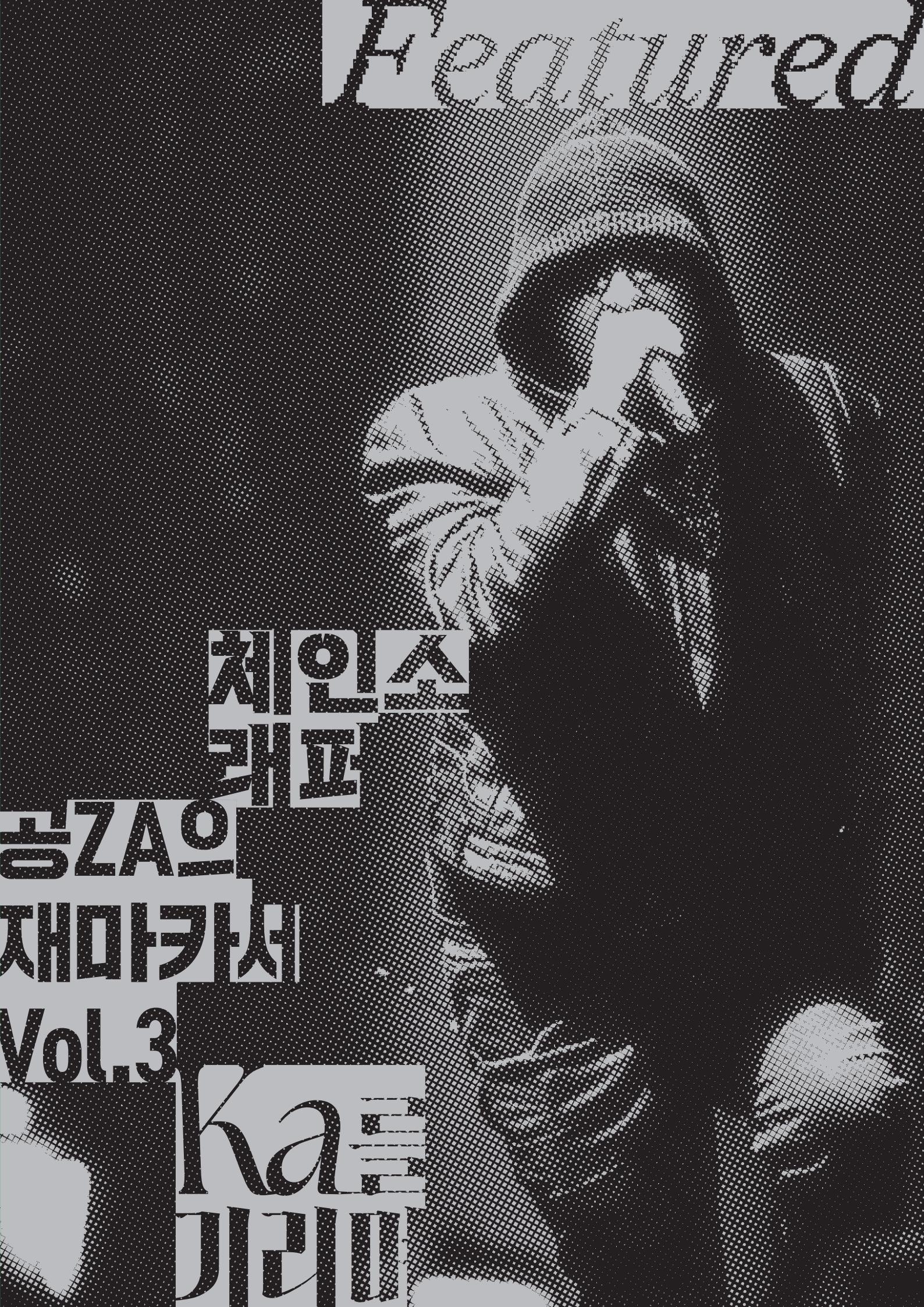
1. Goblin / 2. Yonkers / 3. Radicals / 4. She / 5. Transylvania / 6. Nightmare /
7. Tron Cat / 8. Her / 9. Sandwitches / 10. Fish / Boppin' Bitch / 11. Analog /
12. B.S.D. / 13. Window / 14. AU79 / 15. Golden

Deluxe 1. Burger / 2. Untitled 63 / 3. Steak Sauce

album release 2011. 05. 11



Featured



제인스
캐피

공 ZA의
재마카씨

Vol.3

Ka를
끼리피



Travis Scott

폭동의 악마

공연으로 지진까지 유발시킬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데에 유명한 악마. 안전 따위는 상관 없다. 모든 에너지를 발산 시킬 수만 있다면.

Tory Lanez

총의 악마

이유는 다들 알 것이다. 음악보다 메간디 스탈리온과의 사건이 더 유명한 남자.. 그 행보는 총의 악마 그 자체다.

Kendrick La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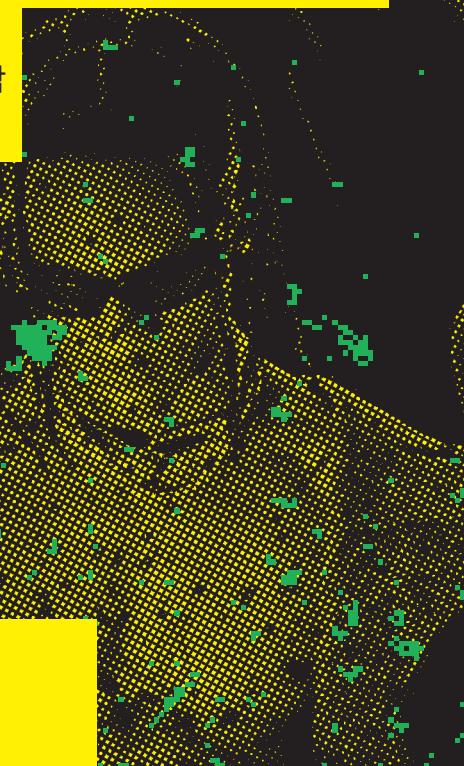
전쟁의 악마

올해 힙합 씬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파생 전투를 날았다. 대표적인 적진은 드레이크인데,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우스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을 일삼으며,

Playboi Carti

악마의 악마

애는 그냥 악마다. 비주얼도 악마, 컨셉질의 악마, 앨범 연기의 악마, 신비주의의 악마, 피쳐링 클리어 안해주는 악마, 공연 취소의 악마, 옹알이의 악마, 여친 목조르는 악마 등등..



Kanye West

일침의 악마

논리로 압살!!!!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침의 악마. 입을 닫고 살았다면 지금쯤 악마가 아니라 신의 위치에 있었겠지만...

Future

허슬의 악마

(무려 본인 참여 프로젝트만 올해 세 작품)

퓨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저출산과 앨범 가뭄 따위는 없었을거란 가설이 존재한다.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작하며 자식 같은 작품들을 발매하고, 다양한 여성들과 협력하여 진짜 자식을 낳은 그는 진정한 '다산의 악마'이다.

Denzel Curry

수작의 악마

(수작은 많은데 명작은 없다 생각해서)

발매하는 족족 수작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굴레에 빠져 명작의 반열에 오를만한 작품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악마. '다음에는 반드시..!'라고 늘 믿게 되지만, 역시 희망이 가장 무서운 법일지도 모른다.

North West

폭탄의 악마

일침의 악마의 자식답게 외모 뿐 아닌 거침없는 행동 마저도 판박이인 모습. 소문에 의하면, 웨스트 일가의 영역 '고양'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던 이들 조차 훌린듯 중얼거린다 한다: 'Bomb, bomb, bomb, bomb...'

Lil Yachty

나유타

흔하고 뻔한 트랩 래퍼 중 한 명이었지만, 한 번의 환생을 통해 음악력이 무한정 상승해버린 그. 이전에는 기피해야 했지만, 어느새 계속 함께하고 싶어진 그의 음악은 나유타로 환생한 지배의 악마와 판박이다.

Tyler, The Creator

창작의 악마

매 작품마다 외형은 물론 자신의 세계관까지 뒤바꾸는, 진정 창작에 광기어린 집착을 보여준다. 벌레아저씨, 꽃소년, 곱추, 귀족, 프랑켄슈타인이 전부 한 인물이란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공ZA의 재마크세 Vol.3

ALBUM 1

<Up at "Minton's"> (Blue Note No. 4069-4070)

Stanley Turrentine

Members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Grant Green – 기타

Horace Parlan – 피아노

George Tucker – 베이스

Al Harewood – 드럼

Tracklist

Disc 1

1 "But Not for Me" (George Gershwin, Ira Gershwin) 11:29

2 "Stanley's Time" 11:03

3 "Broadway" (Billy Bird, Teddy McRae, Henri Woode) 10:38

4 "Yesterdays" (Otto Harbach, Jerome Kern) 11:39

Disc 2

1 "Later at Minton's" 13:55

2 "Come Rain or Come Shine" (Harold Arlen, Johnny Mercer) 8:34

3 "Love for Sale" (Cole Porter) 15:11

4 "Summertime" (George Gershwin, Ira Gershwin, DuBose Heyward) 7:14

Introducing

부드러운 움직임 속 묵직한 편치를 날리는 소울재즈 씬의 선봉, 색소폰 연주자 스탠리 터렌타인(Stanley Turrentine)이 오랫동안 합을 맞춰 온 원군 넷과 함께 민تون스 플레이 하우스에서 모였다. 이날 터렌타인은 본인의 오리지널보다는 스탠다드 넘버 위주로 연주하며 관중이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터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그중 가장 빛나는 순간은 "Broadway". Horace Parlan의 천둥과도 같은 피아노 솔로와 아웃트로에서 드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터렌타인과 Grant Green의 잼 세션은 민تون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충분하였다. 또한, Gershwin 형제가 작곡한 "But Not For Me", "Summertime"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즈 아티스트들이 사랑한 명곡 "Come Rain or Come Shine"의 터렌타인 버전은 왜 가장 맛 있는 맛이 아는 맛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Grant Green이 오르간 연주자가 아닌 피아노, 베이스와 함께 협주한 것도 신선한 점으로 다가온다.



하드 밥과 소울 재즈가 떠오르던 시절, 기타는 오르간, 드럼과 함께 새로운 트리오를 형성하며 수요가 늘었다. 블루노트 또한 그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Lou Donaldson이 소개한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Grant Green)을 레이블로 영입하였다. 곧바로 사이드맨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그는 머지않아 본인의 리더 작도 꾸준히 발표하기에 이른다. <Grant's First Stand> 이후 두 번째로 리더를 맡은 앨범에서 그린은 기타의 단짝 오르간이 아닌 베이스와 드럼을 세션으로 택하며 멜로디 파트를 그린만 담당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다. 리듬 세션의 지원을 받은 그는 Thelonious Monk의 "'Round About Midnight'"과 뮤지컬 <Flying Colors>에 사용된 Arthur Schwartz의 "Alone Together" 등 두 곡의 스탠다드와 함께 세 곡의 오리지널을 선보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그루브가 돋보이는 그린의 기타 연주와 연주에 가려진 그의 작곡 역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ALBUM 2

Green Street (Blue Note No. 4071)

Grant Green

Members

Grant Green – 기타

Ben Tucker – 베이스

Dave Bailey – 드럼

Tracklist

1 "No. 1 Green Street" – 7:20

2 "Round About Midnight" (Thelonious Monk) – 7:04

3 "Grant's Dimensions" – 7:56

4 "Green with Envy" – 9:46

5 "Alone Together" (Howard Dietz, Arthur Schwartz) – 7:13

6 "Green with Envy" [Alternate take] – 7:55

7 "Alone Together" [Alternate take] – 6:56

ALBUM 3

Feelin' Good (Blue Note No. 4072)

The Three Sounds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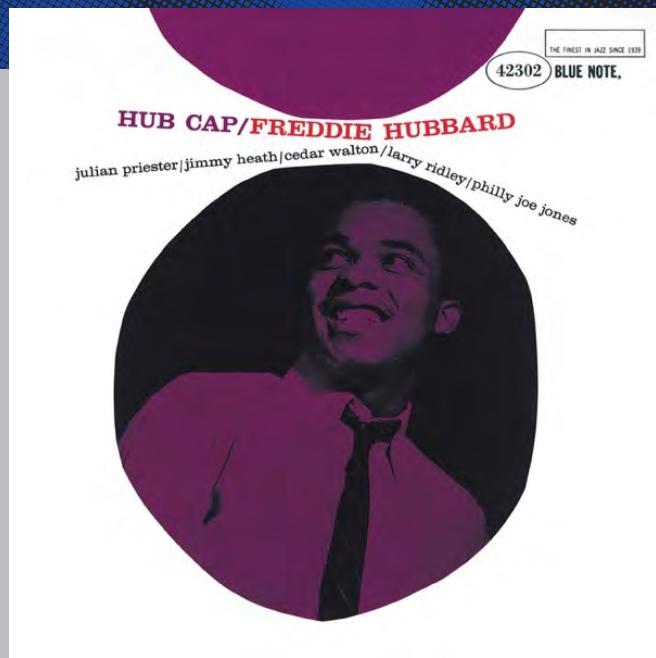
Gene Harris - 피아노
Andrew Simpkins - 베이스
Bill Dowdy - 드럼

Tracklist

- 1 "When I Fall in Love" (Heyman, Young) - 4:56
- 2 "Parker's Pad" (Gene Harris) - 3:37
- 3 "Blues After Dark" (Golson) - 3:45
- 4 "I Got It Bad (and That Ain't Good)" (Ellington) - 6:21
- 5 "Straight, No Chaser" (Monk) - 6:41
- 6 "I Let a Song Go Out of My Heart" (Duke Ellington, Irving Mills) - 4:08
- 7 "It Could Happen to You" (Burke, Van Heusen) - 5:31
- 8 "Two Bass Hit" (Lewis, Gillespie) - 3:52

Introducing

본격적으로 재즈를 접하기 전, 재즈에 대한 인식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나 결혼식장에서 들리는 어딘가 익숙한 사운드의 그것이었을 것이다. 피아니스트 Gene Harris를 필두로 한 The Three Sounds는 스탠다드 넘버를 활용하여 재즈는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했다. 어느덧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발표한 일곱 번째 작품인 <Feelin' Good>은 2번 트랙을 제외하면 전부 스탠다드로 이루어져 있어 그들이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 중 가장 듣기 편하다. 그의 유일한 오리지널 "Parker's Pad"를 비롯하여 Thelonious Monk의 "Straight, No Chaser", Benny Golson의 "Blues After Dark"에서 보여준 경쾌한 터치. "I Got It Bad (and That Ain't Good)", "It Could Happen to You"와 같은 잔잔한 발라드를 동시에 소화하며 하나의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을 베어문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마지막 트랙 "Two Bass Hit"에서는 Bill Dowdy의 울분이 섞인 듯한 드럼 솔로가 나오기도 하니,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분 좋은 식사를 The Three Sounds와 함께 하는 건 어떨까?



ALBUM 4

Hub Cap (Blue Note No. 4073)

Freddie Hubbard

Members

Freddie Hubbard - 트럼펫
Julian Priester - 트럼본
Jimmy Heath - 테너 색소폰
Cedar Walton - 피아노
Larry Ridley - 베이스
Philly Joe Jones - 드럼

Tracklist

- 1 "Hub Cap" - 5:17
- 2 "Cry Me Not" (Randy Weston) - 4:49
- 3 "Luana" - 10:04
- 4 "Osie Mae" - 6:53
- 5 "Plexus" (Cedar Walton) - 9:02
- 6 "Earmon Jr." - 6:16
- 7 "Plexus" [alternate take] (Walton) - 9:10 (1988 Capitol CD re-release only)

Introducing

블루노트 레코드의 단골손님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허버드(Freddie Hubbard)가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단 한 번도 리더 앨범을 낸 적이 없는 다섯 명의 세션을 <Hub Cap>에 초대한다. 피아노 트리오에 관악기 연주자 세 명이 더해진 섹스텟 콤보로, 얼터네이트 버전이 포함된 "Plexus"와 Randy Weston이 작곡한 "Cry Me Not"을 제외하면 트럼펫 - 색소폰 - 트럼본으로 각 악기의 솔로 파트가 진행되어 관악기의 높낮이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프레디 허버드는 강렬한 연주를 통해 테마와 자신의 솔로 파트를 이끌고 동시에, "Cry Me Not"에서는 느린 템포의 발라드를 서정적으로 긴 솔로를 보여주기도 한다. 더불어 드러머 Philly Joe Jones는 관악기와 피아노 트리오를 보조하는 리듬 섹션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그루비한 하이햇과 폭발력 있는 스네어 사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대부분 곡이 Philly Joe Jones의 화려한 드럼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어 앞서 형성된 긴장감이 끝까지 박력을 잃지 않는다.

ALBUM 5

On the Spur of the Moment (Blue Note No. 4074)

Horace Parlan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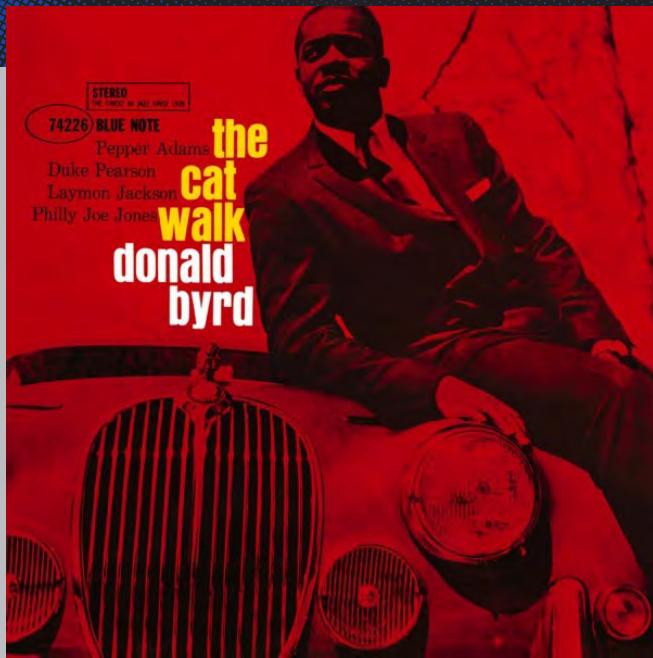
Horace Parlan - 피아노
 Tommy Turrentine - 트럼펫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George Tucker - 베이스
 Al Harwood - 드럼

Tracklist

- 1 "On the Spur of the Moment" - 5:52
- 2 "Skoo Chee" (Booker Ervin) - 10:55
- 3 "And That I Am So in Love" (Harold Ousley) - 5:04
- 4 "Al's Tune" (Ervin) - 7:02
- 5 "Ray C." (Leon Mitchell) - 6:45
- 6 "Pyramid" (Roger Williams) - 6:28

Introducing

호레이스 팔란(Horace Palan)이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발매한 세 번째 앨범 <Speakin' My Piece>의 멤버를 그대로 데려온 본작 <On the Spur of the Moment>. 앨범 제목의 의미는 '충동적으로'이지만, 막상 그 안에 담긴 호레이스 팔란의 연주는 중도를 지키는 침착함에 가깝다. 모든 세션 이 솔로를 선보이는 오프너 "On the Spur of the Moment"를 시작으로 앨범 내내 관악기를 담당한 Turrentine 형제는 그들 특유의 귀를 파고드는 음색으로 강렬한 연주를 연출한다. 하지만 호레이스 팔란은 특유의 코드 위주 보이싱으로 각 트랙이 너무 달리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 또한, 작지 않은 비중의 베이시스트 George Tucker의 솔로잉은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솔로 구간은 왜 그가 호레이스 팔란의 오랜 파트너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호레이스 팔란은 이번 앨범에 테너 색소폰 연주자 Booker Ervin이 작곡한 넘버를 두 곡 수록하였는데, 이 점이 인연이 되었는지 후속작 <Up & Down>에서 Booker Ervin을 관악기 세션으로 섭외하기도 한다.



Introducing

1958년부터 이어진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Pepper Adams와 트럼펫 연주자 도널드 버드(Donald Byrd)의 협업. 각 앨범에 참여한 세션은 달랐지만, 유독 피아니스트 Duke Pearson과 도널드 버드의 호흡은 유달리 좋았고, 이는 Duke Pearson이 작곡에 적극 참여한 <The Cat Walk>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도널드 버드는 다른 트럼페터와 달리 트럼펫 특유의 날카로운 칫소리보다 명료하고 깔끔한 음색의 연주를 선보였고, 이는 캐치한 주 멜로디로 앨범을 채운 Duke Pearson의 작곡 역량과 큰 시너지를 발휘하였다. 이에 Pepper Adams의 허스키한 음색과 대중적인 감각이 더해지며 하드 밥의 팬이 아니더라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하였다. 드러머 Philly Joe Jones의 언급을 빼놓기엔 섭섭한데, 앨범의 분위기가 서정적으로 흐르다 보니 드럼이 관악기와 피아노의 솔로 사이로 치고 나오기 상당히 어려워졌다. 하지만 폭주기관차 Philly Joe Jones는 이에 굴하지 않고 "Each Time I Think of You"부터 시동을 걸더니 "Cute"에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드럼 테크닉을 선보이며 트랙을 완전히 장악한다.

ALBUM 6

Hub Cap (Blue Note No. 4073)

Freddie Hubbard

Members

Donald Byrd - 트럼펫
 Pepper Adams - 바리톤 색소폰
 Duke Pearson - 피아노
 Laymon Jackson - 베이스
 Philly Joe Jones - 드럼

Tracklist

- 1 "Say You're Mine" (Duke Pearson) - 7:21
- 2 "Duke's Mixture" (Pearson) - 7:05
- 3 "Each Time I Think of You" (Byrd, Pearson) - 5:39
- 4 "The Cat Walk" - 6:46
- 5 "Cute" (Neal Hefti) - 6:21
- 6 "Hello Bright Sunflower" (Pearson) - 7:29

Ka를 기리며

카리어 콜아트기

by 카카, moogsick

지난 10월 12일, 브루클린 출신의 래퍼 Kassem Ryan, 카(KA)가 향년 52세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항상 한결같이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보여주며 수십 년간 언더그라운드의 왕으로 군림했었고, 브라운스빌에서 겪은 고난과 투쟁을 시적인 가사로 그려내며 전 세계의 리스너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랩 한 마디 한 마디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왔으며,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종종 자신의 팬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6살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랩 음악에 매료되었던 카는 한평생 힙합과 함께하였고, 본 문화에 있는 힘껏 헌신하며 여러 유산들을 남겼다. 카는 이제 우리의 곁에 없지만, 그의 음악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본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족적을 되돌아보며 그를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



Natural Elements & Nightbreed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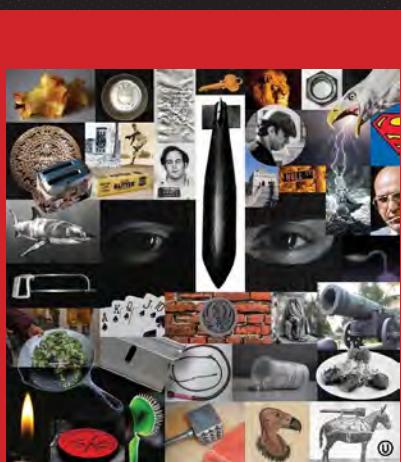
카가 힙합씬에 처음으로 발을 담갔던 때는 바로 1994년, Natural Elements라는 팀 명의의 EP 앨범 <The EP>였다. Mr. Voodoo, L Swift, G Blass, Howie Smalls, The InTimidator, Charlemagne, A-Butta, 그리고 카로 이루어져있던 본 그룹은 하드코어 힙합과 재즈 랩을 섞은 공격적이고 리드미컬한 음악을 선보였다. 그러나 그룹과 자신이 맞지 않다 생각한 카는 1995년 팀을 떠나고, Kev라는 이름의 동료와 함께 Nightbreed라는 듀오를 결성해 싱글 “2 Roads Out the Ghetto”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며 멤버들 각자의 가정을 쟁진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이후 그는 약 14년동안 뉴욕 소방국의 소방관으로 군무하며 래퍼로서의 커리어를 잠정 중단하였다. by 자카

Iron Works (2008)



일련의 활동이 실패로 귀결된 이후 매일 적던 가사 노트도 멈출 만큼 힙합에 정을 떼려 했던 카지만,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창작욕을 막지 못해 다시 랩을 시작한다. 래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즐기기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든 솔로 명의 첫 앨범이 바로 <Iron Work>다. 인디펜던트로 제작된 앨범이며 정체불명의 프로듀서 Yanedus가 주조한 비트는 큰 특징이 없는 단순한 루프 위주 블랙이지만, 읊조리는 듯한 카의 랩만큼은 이 당시에도 존재했다.

이렇게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제작한 음반이었건만 카의 앞에는 놀라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Wu-Tang Clan의 GZA가 그의 래핑을 인상 깊게 들어 함께 곡을 만들자며 연락한 것. 그해 카는 GZA의 정규 5집인 <Pro Tools> 수록곡 “Firehouse”에 피처링하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렸다. 또한 훗날 카와 계속하여 교류를 이어가는 뉴욕 언더그라운드의 거장 Roc Marciano가 당시 Rock Marcy라는 예명으로 해당 트랙을 프로듀싱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by moogsick



Grief Pedigree (2012)

<Iron Works>로 성공적인 재기를 마친 이후, 카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였다. 그는 과거 Slick Rick과 Wu-Tang Clan을 비롯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었고, 이로 인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더욱 성숙해진 시각을 음악에 녹여내고자 하였다. <Grief Pedigree>는 이러한 그의 고민이 잘 드러나있는 작품이다. 그는 소리의 밀도보다는 정제된 가사와 감정의 농도로 승부를 걸었고, 섬세한 샘플 사용으로 특별한 클라이맥스 없이도 전곡을 긴장감 있게 이어나가며 큰 여운을 남겼다. 카는 본작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히 확립하였으며,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삶의 무게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불안들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by 자카



The Night's Gambit (2013)

<Grief Pedigree>에서 얻은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 카는 전작에 비해 더욱 어둡고 간결해진 사운드로 승부를 걸었다. 드럼리스라 이름 붙이기엔 아직 미약하기는 하나 드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심플한 샘플 루핑에 비트에 뼈대를 두는 식으로 장기를 같고 닦았던 것. 또 동일하게 모든 곡을 직접 프로듀싱해 특유의 DIY적 면모를 드러냈다.

그를 지지해 주었던 GZA의 <Liquid Sword>가 떠오르는 아트워크와 마치 체스 게임처럼 정교하고 복잡하게 짠 수사법까지, 그는 당시 메인스트림 힙합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굳건히 밀고 나아갔다. by moogsick



1200 B.C. (2014 / EP)

<1200 B.C.>는 그 어떠한 예고도 없이 조용히 공개되었다. 총 12분의 길이에 5트랙으로 구성된 본작은 프로듀서 Preservation과 1MC/1PD 구조로 제작된 작품인데, 미니멀리즘하면서도 어두운 프로덕션 덕에 느와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부드러운 흐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전작 <The Night's Gambit>에서 차용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Preservation의 손길이 가해져 더욱 세련되고 영화적인 감상을 준다. 특히 “Still Heir”的 은은한 피아노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by 자카

Days With Dr. Yen Lo(2015 / Dr. Yen Lo)

Yen Lo's lectures began
Kostroma was not invited
pairs, not unlike dons mov
lovely copse which framed th
Yen Lo had inserted so m
into the minds of the elev
summer afternoon: not too
humidity of the morning
been excellent.

DAYS WITH DR. YEN LO
The single extraordinary

일 년 전 발매했던 <1200 B.C.>의 후속편 격인 본작은 영화 <맨체리안 캔디데이트> 속 등장 인물에서 타이틀을 따왔다. 프로듀서 DJ Preservation을 파트너로 두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닉터 옌 로(Dr. Yen Lo)라는 그룹을 결성하였고 39분의 볼륨과 함께 보다 넓은 사운드를 펼쳐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진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훗날 드럼리스라는 명칭이 붙은 특유의 사운드가 자리 잡기 시작한 음반이라는 사실이다. 동시대 The Alchemist와 카의 절친한 동료였던 Roc Marciano에 의해 뿐리내리기 시작했던 드럼이 거세된 샘플 중심 블랩 비트를 모든 수록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Day 81”에 Roc Marciano가 훌륭한 벌스를 보탰으며, 같은 시기 앱스트랙 힙합 씬의 종아로 떠오르던 Earl Sweatshirts가 <Days With Dr. Yen Lo>를 올해의 앨범으로 꼽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Day’라는 제목만 공유할 뿐 지극히 불친절한 트랙리스트, 다소 낯선 이름에 겁먹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면 순식간에 이들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by moogsick

THE SUPERFLY SINGLE



The Superfly Single (2016 / EP)

<The Superfly Single>은 경제적 불균형과 절망, 범죄, 그리고 내적 갈등을 다룬 2곡으로 이루어진 EP 앨범이다. 카는 본작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탐구를 실행하며, 저 소득층의 삶과 마약 밀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여러 물음표들을 던진다. “30 Keys”에서 그는 마약 밀매상의 삶을 그리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다른 일로 성공할 수가 어렵다는 비극적인 현실에 탄식하며, “Grapes of Wrath”에서는 친숙한 소울 샘플 위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 경험들과 고통을 녹여낸다. by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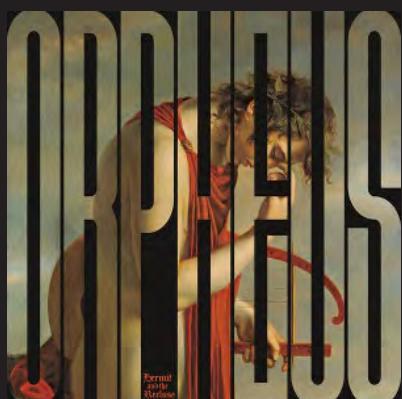
Honor Killed the Samurai (2016)



‘These were known as samurai’

<Honor Killed the Samurai>는 일본의 고대 전사 문화, 즉 사무라이를 주제로 한 컨셉 앨범이다. 카는 본작에서 군사 전략, 윤리, 또 철학에 대한 몇 가지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며, 여러 인터루드를 통해 앨범에 풍부한 색채와 깊이를 더한다. <HKTS>에서 카는 사무라이의 가치와 그들이 직면했던 도덕적인 딜레마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청자에게 여러 사유들을 유도한다. 차가웠던 전쟁들과 사무라이의 명예를 동시에 다루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훈을 전달한 그는 본작을 통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이자 리릭리스트인지 다시금 똑똑히 각인시켰다. by 자카

Orpheus vs. the Sirens (2018 / Hermit and the Recluse)



카와 Animoss의 1MC/1PD 그룹인 허밋 앤 더 레클루스(Hermit and the Recluse)의 이름으로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 언더그라운드 블랙의 또 다른 베테랑 프로듀서인 The Alchemist 가 그려하듯 Animoss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Roc Marciano, Griselda 등과 함께 작업하며 어둡고 텁텁한 동부의 사운드를 갈고닦아 왔다. 초기 드럼리스를 대표하는 음 반이자 Roc Marciano의 대표작 중 하나로 남아 있는 <Reloaded> 역시 그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물론이다. 앞서 다른 챕터에서도 언급하였던 카와 Marci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Orpheus vs. the Sirens>는 필연에 가까운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본작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카의 내러티브를 한데 묶어낸 결과물이다. 그는 맥시멀한 오케스트라(“Argo”)와 한껏 강조된 드럼(“Oedipus”), 신디사이저 루프(“Hades”)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뉴욕 거리의 이야기를 전한다. 다만 다른 음 반과의 차이점은 카 자신이 직접 신화 속 음유시인 오르페우스로 분해 여러 모티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황금 양털(“Golden Fleece”)처럼 직접적으로 페르소나와 연결되는 사물뿐만 아니라 시시포스의 형벌(“The Punishment of Sisyphus”), 오이디푸스와 트로이 목마(“Oedipus”) 등 다양한 상징을 한데 연결하는, 절정에 다다른 카의 스토리텔링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뒷받침하는 Animoss의 비트까지 가히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들의 조합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 by moogs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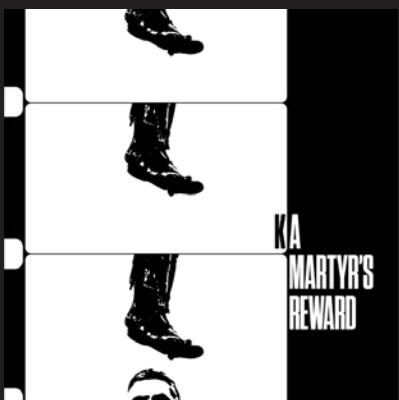
Descendants of Cain (2020)



성경 속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 그리고 흔히 뱀파이어와 같은 괴물로 일컬어지는 카인의 후예는 카의 손에서 미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 재탄생한다. 카인이 하나님에 의해 표식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과거 흑인이 백인에 의해 낙인이 새겨진 채 아프리카를 떠나야 했던 역사와 연결되며, 자신의 혈육을 살해한 카인은 곧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목숨을 빼앗아 가는 현대 흑인 사회와도 같다. <Descendants of Cain>은 전작들처럼 뉴욕의 어두운 이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사무라이, 체스, 그리스 로마 신화 등 여러 모티프를 활용하는 수사법이 극에 달한 작품이다.

주로 스트링과 피아노 루프를 통해, 또 “Patron Saints”와 “My Brother’s Keeper”의 사이처럼 트랜지션을 적극 사용하며 나아가던 앨범은 Roc Marciano가 참여해 보이스 샘플을 전면에 내건 “Sins of the Father”에서 비로소 그 주제 의식을 밝힌다. 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와는 반대로 미국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흑인들은 카인의 후예로서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아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결국 그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복수가 단순히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낡은 정의(“Old Justice”)일 뿐이라는 생각을 전한다. “This is America”처럼 극적이거나 Kendrick Lamar의 음반같이 거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카는 줄곧 자신이 속한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꿰뚫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by moogsick

A Martyr's Reward (2021)



<A Martyr's Reward>에서 카는 자신을 순교자라 칭하며 삶에 대한 온갖 실존주의적 질문을 던진다. “P W H”的 웅장한 오르간 소리, “Subtle” 속 샘플 루프와 크로스 스틱 드럼처럼 맥시멀과 미니멀을 오가는 프로덕션이 인상적인 한편 비트 스위칭 트랙을 시도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뉴욕 언더그라운드의 신성 Navy Blue가 참여한 “We Living/Martyr”은 고난에 찬 현실의 삶과 이에 대한 회고를 병치해 드러내며, 고요히 침잠하는 후반부 비트의 “Enough Praise/Recovering”은 마치 스포큰 워드를 연상케 하는, 카의 커리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심플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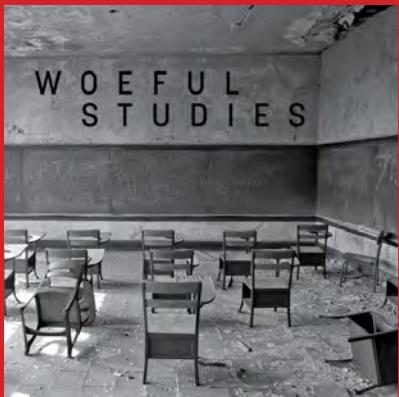
연이은 수준급의 작품 발매, 언더그라운드의 은둔자적 면모, 수년간 쌓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라는 생업을 이어가기까지. 카의 한결같은 태도를 떠올리자면 순교자만큼 그와 어울리는 단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다. by moogsick



Languish Arts (2022)

<Languish Arts>의 프로덕션은 유독 미니멀리즈다. 모든 트랙들은 짧은 인스트루멘탈 루프를 기반으로 하며, 카는 이 위에서 부드럽고 기발한 래핑과 가사를 내뱉었다. <Languish Arts>에서 카는 수동적으로 학습된 행동들이 흑인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끝없는 빈곤과 억압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지에 관해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카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흑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슬픔을 털어놓았고, 종종 회상과 후회를 담아내기도 하며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카의 2022년은 너무나도 황폐했었으나, <Languish Arts>와 그의 존재는 그 공백을 빈틈없이 채워주었다. by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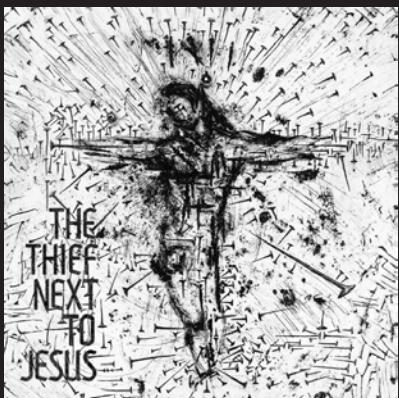
Woeful Studies (2022)



커버아트에서 짐작할 수 있듯 <Languish Arts>와 같은 날 발매된 연작 앨범 <Woeful Studies>는 유사한 러닝타임과 트랙 배치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 본작의 엔딩인 “My Only Home”의 처음 부분에 삽입된 샘플은 곧 <Languish Arts>의 오프닝 “Full Cobra”와 동일한 소스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음성의 출처가 모두 20세기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Eyes On The Prize>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 두 앨범이 하나의 주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카가 전하는 메시지는 “We Not Innocent”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We ain't innocent, we in to dollars’ - 즉 역사와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로 간주되어 왔던 자신들조차 결코 결백하지 않으며 금전의 논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 자신부터 게토의 생태를 수많은 곡에 생생히 담아낼 정도로 범죄 바로 옆에서 생활했으면서도 결코 더러운 돈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살아온 인물이었기에, 수십 년을 힘함에 몸담은 이 명장의 말이 더욱 깊숙이 폐부를 찌른다. by moogsick

The Thief Next to Jesus (2024)



카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마저도 야심찬 인물이었다. <The Thief Next to Jesus>에서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기독교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Tested Testimony”에서 그는 종교가 노예 문화에 미친 악영향들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며, “Cross You Bear”와 같은 트랙들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흑인들이 기독교에 과의존했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종교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억압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설명하며, 이러한 맥락들 속에서 흑인 공동체가 겪어온 아픔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The Thief Next to Jesus>는 그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아도 가장 깊이 있고 창의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그는 이전 작품들과 다를 바 없이 미니멀한 비트 위에서 철학적인 가사말들을 내뱉었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마지막이 역시나 너무나도 그다웠다는 사실이 끝내 애달프다. by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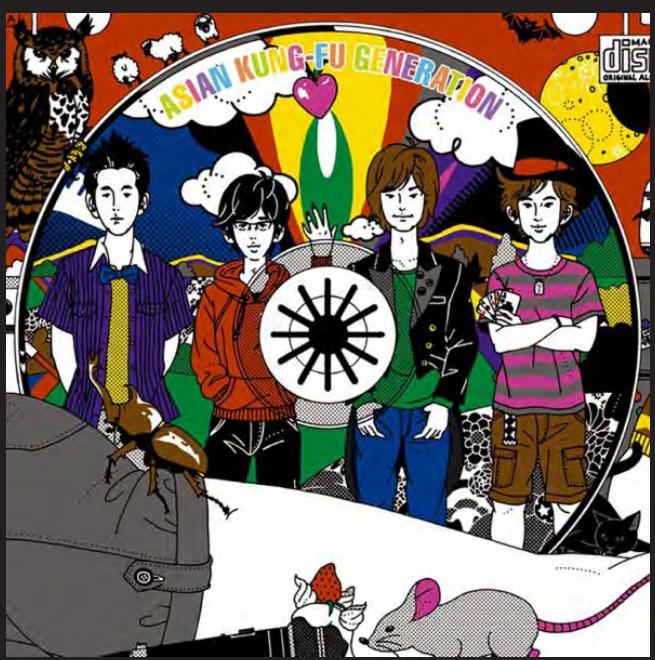
Kendrick Lamar, Travis Scott, Drake 등 슈퍼스타들의 트랙리스트 속에서 드럼리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시점에서 카의 족적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Westside Gunn을 위시해 메인스트림과 결탁한 Griselda와 다르게 카는 친우 Roc Marciano만을 곁에 둔 채 모든 작품을 가내수공업으로 세공하며 오롯이 언더그라운드에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운스빌의 거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후배들이 그의 광대한 커리어와 자신에게 준 영향, 함께했던 추억을 회고하며 추모하였다 사실은 그가 뉴욕 씬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언더그라운드의 화신 MF DOOM처럼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카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지금도 수많은 래퍼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힙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어야 할까? 트랩을 대표로 하는 음악 속의 범죄 묘사는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그와 그의 음악을 기억하고 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Editors' Pick



マジックディスク [Magic Disk] / Vocaloid Drain, Vol. 1 /
Re:結束ノゾン / Frost Children & HARU NEMURI /
VANISHING ACT II: ULTIMATE REALITY /
Cool World / APT / eko



マジックディスク [Magic Disk] ASIAN KUNG-FU GENERATION

1. 新世紀のラブソング / 2. マジックディスク / 3. 双子葉 / 4. さよなら口ストジェネレイション / 5. 迷子犬と雨のビート / 6. 青空と黒い猫 / 7. 架空生物のブルース / 8. ラストダンスは悲しみを乗せて / 9. マイクロフォン / 10. ライジングサン / 11. イエス / 12. 橙 / 13. ソラニン

album release 10.06.23

성덕은 늘 이긴다. 그리고 성덕을 이기게 하는 동력은 무한한 애정과 또 하나, 바로 들끓는 자의식이다. 필자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임을 인정한다. 또한 자의식에 사로잡혀 방황하든, 도취하든 자신의 청년기를 어떻게든 불태우며 비틀대는 이들에게 '감상주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iceage와 Elias를, 그리고 아지캉(AKFG)과 고토(Ghoto Masafumi)를 추종하는 이유다. 열혈팬으로서 보는 밴드의 일대기는 곧 보컬 홀로의 고된 자의식 여정 + 묵묵히 뒤받쳐주던 멤버들과의 '우여곡절'이다. 여기에 <Magic Disk>는 여성의 정점이자, 위기이자, 변곡이자, '마법'이다. 당시 밴드는 왜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위태로웠고, 결정적인 탓은 고토의 빌어먹을 자의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혼란과(<Sol-fa>) 우울을(<Fanclub>) 지나, 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조응하던(<World World World>) 그는 결실을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멤버들, 팬들과 함께 연결돼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새로운 챕터를 향한 준비를 하며("新世紀のラブソング"), 철없던 시절에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ソラニン"). 자아도 결국 서투르게 완성해나가는 것이며, 밴드는 서로 '결속'돼있을 때 결작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혼자만 열렬한 성덕은 너무 외롭지만, 팀과 나아갈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by 감상주의



Vocaloid Drain, Vol. 1 Cereal Experiments

1. Be Nice 2 Miku / 2. Decay (Vocaloid Ver.) / 3. Obedient (Vocaloid Ver.) / 4. Side By Side (Vocaloid Ver.) / 5. Peroxide (Vocaloid Ver.) / 6. True Love (Vocaloid Ver.) / 7. I Want It That Way (Vocaloid Ver.) / 8. Golden Boy (Vocaloid Ver.) / 9. Inside Out (Vocaloid Ver.) / 10. Egobaby (Vocaloid Ver.) / 11. Miku the Snowman

album release 23.03.06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디깅하다 보면, 작품성을 떠나 순수 재미와 도파민 활성화에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보컬로이드를 사용하여 힙합 음악을 선보이는 아티스트 Cereal Experiments가 그들 중 한 명이다. 앨범 제목에서도 뚜렷히 드러나듯 Drain Gang의 곡들을 보컬로이드를 사용해 리메이크한 앨범 <Vocaloid Drain, Vol. 1>에서 특히 도파민이 더 활성화된다. 듣는 내내 익숙한 곡들에서 귀여운 여성 기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필자는 본작을 자전거를 타며 처음 들었는데, 웃음이 계속 나와 타다가 넘어질 뻔했다 (진짜다). 1번 트랙과 11번 트랙에서 미쿠의 이름을 활용한 제목 오마주도 웃음 포인트다. 더욱 재밌는 점은, 단지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기에도 꽤나 좋다는 것이다. 플럭앤비나 클라우드 랩 장르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쁘고 귀여운 여성 보컬이 이 곡을 만들었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이 앨범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장난은 모두 차치하고, 같은 아티스트의 앨범 <Women's Basketball>은 사운드적으로도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잘 만든 보컬로이드 힙합 앨범이니 한번쯤 확인해 보길.

by BlackMatter



BOCHI THE ROCK! Re: 結束バンド ○○○○

Re: 結束バンド

Kessoku Band

1. 月並みに輝け / 2. 今、僕、アンダーグラウンドから / 3. ドッペルゲンガー / 4. 僕と三原色 / 5. 秒針少女 / 6. Re:Re:

album release 24.08.14

'이 밴드가 대단하다!' 어느새인가 결속밴드(Kessoku Band)는 제2의 Egoist라 해도 될 만큼, 2D 세계를 끊고 현실의 제이팝 시장을 뒤흔드는 세력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정규 앨범은 흥행뿐만 아니라, 평단에서도 의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전설적인 선배들 '방과 후 티타임'도 못다 한 쾌거다. 그들의 고공 행진 중 <Re: 結束バンド>는 현재진행형. 그들의 활동은 언젠가 완결될 극의 이벤트용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이 토록 힘이 가득 차 있는 시작은("結束バンド") 단지 극장판용 오프닝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TVA에서부터 이어진 소녀판 청춘 평크 Re:바이벌은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한 기타의 목소리에 힘입어, 계속 빛나고 싶은 의지와 나를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우리를 노래한다. 마치 "자폐탐색"에서 벗어나 음악으로 나를 드러내고, 멀리했던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던 그들의 전신처럼 말이다. 아, 그리고 보니 "Re:Re"와 "僕と三原色"의 간주 속 오마주를 통해 이번에도 성덕으로서의 현정을 빼놓지 않았다. 아무래도 '성덕은 늘 이겨'라는 필자의 슬로건은 이들에게 더욱 걸맞지 않겠는가. 조만간 발표될 미래형 미니앨범 <We Will>도 잊지 마시라. 니지카의, 이쿠요의, 료의, 그리고 더는 스스로를 놓치라 여기며 웅크리지 않아도 될 히토리의 '선율은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 말이다.'

by 감상주의



Frost Children & HARU NEMURI

Soul Kiss

1. Daijoubu Desu / 2. Burn / 3. Supernatural / 4. Bad Thing / 5. Get Well Soon

album release 24.10.04

<Soul Kiss>는 그 형성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작품이다. 락과 하드코어 장르에서 큰 활약을 펼쳐온 일본의 하루 네무리(HARU NEMURI)와 인디 락, 또는 하이퍼 팝에 강세를 두고 있는 프로스트 칠드런(Frost Children). 이들의 협업을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 예상한다. 이 예상치 못한 협업의 결과는 강렬하지만 동시에 다소 애매하다. 수록된 다섯 곡은 모두 하루와 프로스트 칠드런이 보여줬던 파워풀함의 극치를 달리며 첫 트랙부터 그로써 작품 자체를 각인시키는 데에 일조한다. 일렉트로닉 락을 적절히 결합한 비트로 강약 조절을 하며 하루와 프로스트 칠드런 모두 락 창법에 가까운 보컬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개인 작품들에 비해 조금 다른 결을 그리면서도 미미해보이는 장르의 변경에 맞춰 퍼포먼스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분명 고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애매함'은 여전히 만연하다. 그 방향성의 디테일은 달라졌을 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작품의 형태는 프로스트 칠드런의 작업물에 하루가 피쳐링한 정도의 느낌을 능가하지 못한다. 하루의 프로듀싱은 앨범 중 전혀 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프로스트 칠드런의 <SPEED RUN>의 하이퍼 팝과 <Heart Room>의 초반에서 보여준 강렬한 락이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점이다. 하루의 작품들이 받아온 평가는 결코 보컬에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합작에서의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여러분으로 작품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by BlackMatter



VANISHING ACT II: ULTIMATE REALITY

Clarence Clarity

1. What Year Is This?!?! JFC / 2. ALLATONCENESS / 3. To Be A Bat / 4. even after all we have been through / 5. Playing Our Parts / 6. The Greatest Living Musician, Found Dead / 7. juliano so cute lowkey / 8. Rage Quitting, Quietly / 9. Old King, The World Moved On / 10. Deep-est Sea Regret (Resurfaced) / 11. Guinevere

album release 24.10.04

당신이 전자 음악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공적이고 사 이버틱한 전자음의 향연에서 오는 쾌감과 비현실성, 그를 통 한 세상과의 단절이 필자의 이유다. 당신이 얼터너티브 R&B 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으로부터 불 러져 나오는 내면의 감정과 ‘얼터너티브’라는 단어가 대표하는 사운드의 다양성과 실험성이 필자의 이유다. 클라렌스 클 래리티(Clarence Clarity, 이하 클라렌스)의 다섯 번째 정규 앨 범 <VANISHING ACT II: ULTIMATE REALITY>는, 이 두 종류의 음악이 소비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면밀하게 파악했으 며, 그 틈을 파고들어 견고히 자리잡는다. 단 1초의 정적도 없 이 채워진 발랄하고 기계적인 글리치와 가상악기들, 그 레이 어와 변주로 형성되는 단순 청각적 자극 그 이상의 멜로디라 인, 이 위에 올려진 오토툐으로 뒤덮인 R&B 스타일의 팔세토 보컬.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장르에 대한 연구와 결 합에서 태어난 이 작품은 분명 올해 발매된 그 어느 작품보다 창의적이며 즐겁다.

by BlackMatter



COOL WORLD



Coo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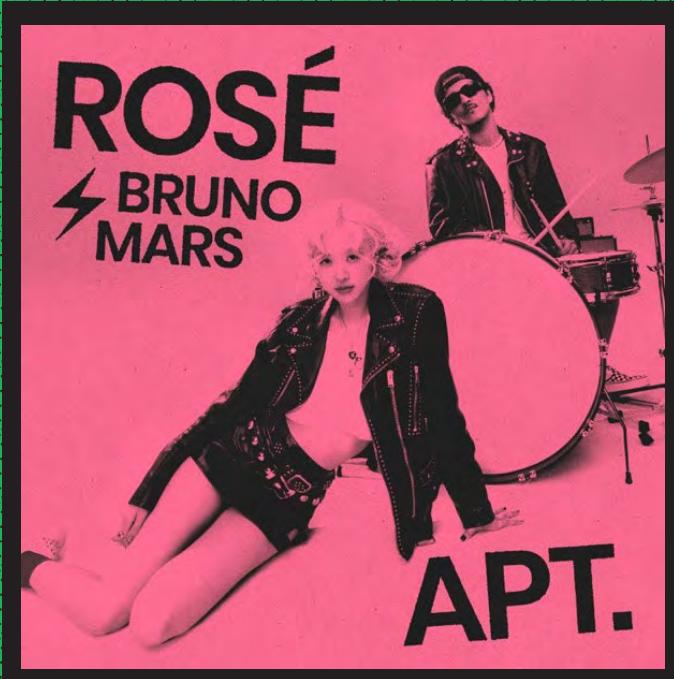
Chat Pile

1. I Am Dog Now / 2. Shame / 3. Frownland / 4. Funny Man / 5. Camcorder / 6. Tape / 7. The New World / 8. Masc / 9. Milk of Human Kindness / 10. No Way Out

album release 24.10.11

챗 파일(Chat Pile)의 틈새 공략은 올 한 해 통틀어 가장 호 락호락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고작 두 번째 스튜디 오 앨범에서 선보인 군더더기 없는 매음새는 놀라움을 넘어서 경탄하게 된다. <God's Country>에서의 거친 질감이 다 소 정제되는 대신, 배가된 끈적거림과 신랄함이 이를 적시며 / 무리하는 기색 없이 10개의 트랙이 일정한 동력으로 운동 하는 기계적인 면모 역시 관찰된다. 묵직하다는 표현보다 육 중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본작에서는 90년대를 풍미했던 Nirvana의 향수, 조금 이전 세대에서 활약했던 The Cure 의 향수 역시 관측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Cool World> 는 정석에 가까운 구성과 공간감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소 정의 디테일들이 이 기초공사의 위대함을 빛나게 해준다. "I Am Dog Now"를 필두로 시작되는 이 모호하고 시니컬한 세계는 마치 특정하기 쉬운 안개 같다. 어디서부터, 언제부 터 생겼는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지만 쉽사리 걷혀 내기는 어려운 기현상에 관해 - 챗 파일은 그 속에 속한 한 도시 부족(部族)으로서 무력한 분노를 퍼붓는다. 환기구가 부족 한 소규모 공간 속에서도 숨이 차오르게 하지 않는 테크닉과 / 모난 곳 하나 없이 대안적 성격과 주류의 성격을 동시에 충 족시켜주는 절제심. 챗 파일은 본작을 통해 착지할 지점을 확 실하게 결정했으며 지닌 무기들을 일제히 퍼붓는다. 국가에, 이 사회에, 끝내는 당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진보적 아말감 (Amalgam).

by SRUKSAN



APT.

ROSE & Bruno Mars

1. APT.

album release 24.10.18

BLACKPINK의 멤버 전원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곳에 둉지를 틈지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2023년 자수의 "꽃"을 이어 JENNIE와 LISA, 로제(ROSE) 역시 자신들만의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로제의 신곡 "APT."는 가장 신선하고 독보적인 순간이다. 로제는 꽤나 큰 스타일적인 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아파트 게임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중독적이고 귀여운 코러스, 다소 여성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브릿지 파트, 브루노 마스(Bruno Mars)와 로제의 군더더기 없는 담백하고 강력한 벌스까지. "APT."에서 그녀는 YG 엔터테인먼트 시절과 <R>에서 보여주었던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대담하며 자극적으로 변한 사운드를 보여준다. 또한 로제는 곡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잡는다. 그녀는 브루노 마스라는 초대형 팝스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며 매혹적인 초대장과 경고를 날린다. "APT."에서 로제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꽉꽉 눌러 담은 채 노래를 부르며, 그녀에게 완벽히 들어맞는 옷인 빈티지 팝-록 리프를 차용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확실히 발견해냈다. "APT."는 중독성 있고, 신선하며, 무엇보다 재미있는 트랙이다. 오는 12월 발매될 <rosie>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쉽사리 예측이 되지는 않지만, 우선 그녀는 리스너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이미 성공한 듯 하다.

by 자카



eko

yeule

1. eko / 2. eko (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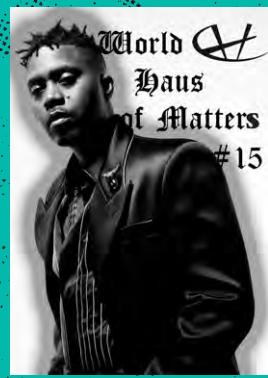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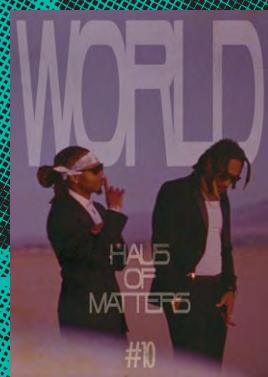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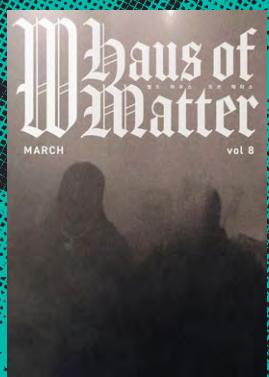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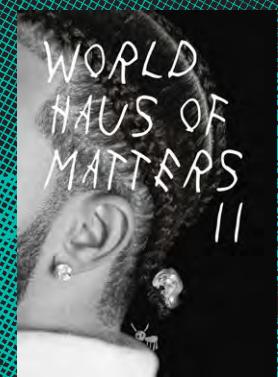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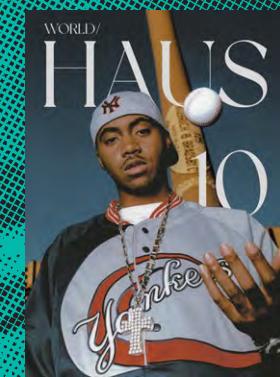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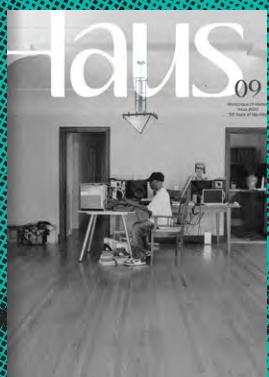
album release 24.10.23

율(yeule)의 음악은 흥터와도 같았다. 우울증과 신체 이형 장애, 트라우마 등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정신적 문제들을 글리치 팝과 얼터너티브 락 등의 그릇에 담아왔던 '그들'의 음악은, 그 개인적임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독특하고 기괴한 미학과 겹쳐져 탄탄한 팬덤과 신드롬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나, 유사한 테마에도 불구하고 세 장의 정규 앨범이 발매될 동안 그들의 음악은 한 번도 반복적이거나 뻔하지 않았다. 1집 <Serotonin II>에서는 앰비언트와 글리치 사운드를, 2집 <Glitch Princess>에서는 그 글리치에 팝적 요소와 인더스트리얼 요소를 더했고, 3집 <softscars>에서는 과거의 영광에 시선을 돌리며 드림 팝, 노이즈 팝, 슈게이즈, 인디 락 등에 또다시 글리치를 더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리고 10트랙의 정규 4집을 선공개하는 싱글 <eko>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진화를 꾀한다. 업비트의 팝 락 장르를 택하여 조금 더 귀엽고 밝아진 음악과, 조금 더 인간에 가까워진 미학의 결합은 그간 다뤄온 고통의 서사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사이버 디멘션에서의 탈출로 표현하는 듯하고, 이는 정규 4집이 기존 세 장의 앨범과 뚜렷하게 차이를 가지고 대중적 경로를 택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그들의 장르에 우려를 표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 항상 따뜻한 포옹과도 같은 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아픔을, 그들의 에코는 또다시 어루만져준다.

by BlackMatter

WORLD HAUS OF MATTERS

지난호
보러가기





KILL
THEM ALL

khlhomofficial@gmail.com / @hausofmatters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